한인뉴스

Korean News(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haninnews@naver.com

2009·3
통권153

한인회 홈페이지(www.innekorean.or.id)에서
한인뉴스를 PDF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발행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LG전자 이기주 부사장(왼쪽)이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니대통령으로부터 〈최우수 디자인상〉을 받고 있다.

LG전자, 인니 최우수 디자인상 수상

인도네시아 고객에 대한 철저한 구매성향 조사 통한 결과

- 최우수수출기업상, 투자기업상 이은 최우수 디자인상 수상으로 인도네시아 [국민 브랜드]로 성장
- 홈시어터 시장 점유 39%로 확고한 1위 차지
- 모니터 • 양문형냉장고 • 세탁기 • 에어컨 등도 시장점유율 1위

최우수 디자인상을 받은 홈시어터(LHT-3602ME)

인도네시아 최우수 디자인상(Indonesia Good Design Selection Award)

인도네시아 정부가 주관하는 최우수 디자인상은 제품 디자인과 디자인개발 프로세스, 실제 판매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대통령이 시장하는 최고 권위의 디자인 상이다.

LG

CIC 365일	LG 고객 정보 센타, 365일		
	자카르타	(021) 727-99777	0-800-123-7777 수신자부담
	수라바야	(031) 549-0777	

Visit Online Store

tokoLG.com

Beyond 40 Years

www.koreanair.com

모두 잊어버리겠습니다

2005-2008년 IATA 세계 화물 수송 4년 연속 1위
2006, 2007년 ITCA 머큐리상 '최우수 기내식' '최우수 기내 서비스' 수상
2006년 TIME 퍼스트/비즈니스클래스 부문 1위
2008년 Business Traveler 아시아 최고 항공사
2007-2008년 Business Traveler 아태지역 최고 비즈니스클래스 항공사
2008년 Global Traveler '북아시아 최고 항공사'
2008년 중국 World Traveler 최우수 기내서비스 상

그 동안, 전 세계로부터 받은 이 수 많은 상들
저희는 깨끗이 잊어버리고자 합니다
오직, 더 잘하라는 격려의 의미만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다른 어떤 상보다
고객 여러분께
듣는 칭찬
한마디가
저희에겐
더소중하니까요.
여러분께 더 좋은
서비스를 드리기 위한
노력, 멈추지 않겠습니다

지난 한 해 주신 큰 사랑, 올해는 더 좋은 서비스로 돌려 드리겠습니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PT. BOSUNG INDONESIA

KS A 9001 : 2001/ISO 9001 : 2000 - KS A 14001 : 2004/ISO : 2004

- CORRUGATED
- CARTON BOX
- INNER BOX
- SHOPPING BAG
- OFFSET PRINTING

Jl. Raya Rajeg, Desa Sindangsari, Kecamatan Pasar Kemis Tangerang 15560 Banten - Indonesia
E-Mail : shopping@bosung.co.id sales@bosung.co.id Tel. : (021) 5935 1001(Hunting)
Fax. : (021) 5935 0022 (Shopping Bag) - (021) 5935 0066 (Inner Box) - (021) 5935 0033 (Carton Box)

PT. TAEWON INDONESIA

ISO 9001: 2000 / ISO 14001 : 2004

- CORRUGATED
- CARTON BOX
- INNER BOX
- OFFSET PRINTING

Jl. Raya Industri Selatan 1, Blok LL-6 Kws. Industri Jababeka II Cikarang Bekasi 17550
E-mail : sales@taewon.co.id Tel : (021) 8948 - 1234 Fax No : (021) 8984 - 1133/1134

AWARDED
Best Product
INDONESIA
Menteri Perindustrian
2009

23년을 한결같이...
언제나 변치않는 마음으로,
가장 먼저, 가장 멀리, 그리고 가장 높이,
더욱 힘차게 날아오르겠습니다.

Eagle
Since 1986 EAGLE

EAGLE AWARDED

" BEST PRODUCT IN INDONESIA 2009 "

Selalu Bangga Gunakan Produk Dalam Negeri Kualitas Internasional
Pemeran Alas Kaki, Kulit Produk Indonesia 2009
Gelar Sepatu Produk Indonesia 2009

문화회관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인사회의 문화활동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개관한 한인회 '문화회관'은 작지만 쾌적한 공간에 교민들께서 보내주신 양서들이 있고, 차 한잔의 여유를 음미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한국과 인도네시아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시청각 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성으로 마련한 '문화회관'에서 우리사회가 문화적으로 한 단계 성숙해 나가길 바라며 교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가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서관]

우측 도서관 이용안내 참조

[휴게실]

TV시청, 신문, 잡지, 도서 열람 가능

한인회 도서관 이용안내

★ 이용 시간

-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 이용 대상

한인회 회원증 소지자

(* 한인회원 가입은 한인회 사무국으로 문의하세요.)

★ 대여 방법

가. 회원증 사본 제출

나. 보증금 Rp.200.000 (요청 시 환불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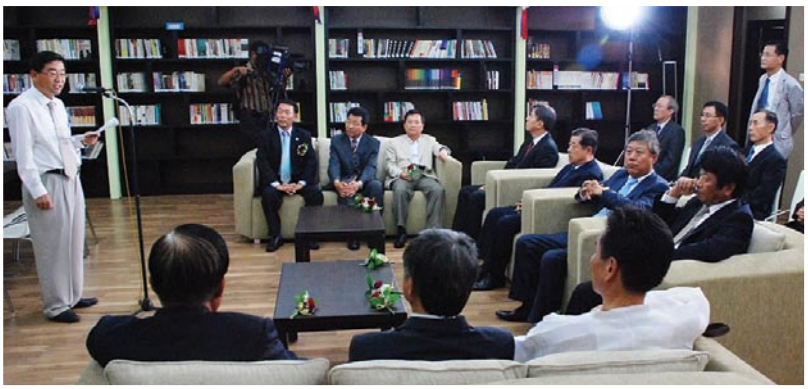
다. 대여 권수 및 기간
- 도서 2권 / 기간 7일

라. 대여 기간 연장
-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기가 가능 합니다
- 전화 및 직접 방문

마. 반납 연체 및 분실 시
- 연체일수 만큼 대출정지 또는 1일 1책당 Rp.1000 부과
- 분실 시 실비 변상

[소규모 모임]

각 문화단체 및 세미나, 동우회 등 소규모 모임 장소대여 가능



※한인회원가입 및 문화회관 이용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한인회 사무국 (021-521-2515)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회 지정 가맹점 안내

한인회원증을 소지한 교민들은 다음의 〈한인회 지정 가맹점〉을 이용하시면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 호 명	주 소	전화번호	이용 가능 카드	할인액	기타
한 국 관	Jl. Sudiraman 1 Panin Bank Centre, Jakarta	720-7322	ANZ	15%	
가나 레스토랑	Jl. Sudirman Kav.1 Land Mark Bd. Ground Fl.	571-0909	모든카드	10%	10회 이용시 1회 무료 (이용금액 무제한)
아랑갈비	Jl. Niaga Raya Kav.1-4 Blok CCBD, Cikarang Jababeka	8983-5988~9	모든카드	10%	골프연습장(JABA D/R) VAUCHER 10% D/C
씨티서울	Jl. Jend Sudirman Kav.52-53 Lot. 6, Jakarta	5289-7506	모든카드	10%	
한 성 관	Jl. Boule Vard Raya LB3. No.22 Kelapa Gading	453-3033	VISA, MAS-TER, BCA	10%	
한 우 리	Ruko Bakit Raflesia Blok AB-7, Jl.Alternatif Cibubur	8459-2871	VISA, MAS-TER	10%	
장터 레스토랑	Jl. Raya Batavia Blok LC 08, No. 9-10 Kelapa Gading Jakarta Timur	4585-4302		10%	
뉴서울 슈퍼	Jl. Melawai Raya 109, Jakarta Selatan	723-6238	VISA, MAS-TER, BCA	5%	

바로 잡습 니다

한인뉴스 2009.2월호

17쪽:

최용호 씨(맨 좌측)와 가족들

–〉 최용희 씨(맨 좌측)과 가족들

18쪽:

이종후 삼익 인도네시아 법인장

–〉 이영호 삼익 인도네시아 법인장

한인회 특별활동 및 강좌 안내

〈 인도네시아어 강좌 〉

강의시간 : 매주 화/금요일, 10:00~12:00
강의실 : 한인회 2층
지도강사 : 안선근 교수
연락처 : 521-2515 / 0816-1883-224

〈 인도네시아 문화탐방 〉

자카르타 소재 40여개의 박물관과 30여곳의 유적지, 갤러리, 레스토랑 탐방과 전시회 등을 관람.
탐방리더 : 사공경, 신유희
연락처: 사공경 (0816 190 9976),
신유희 (0818-708-228)

〈 월화차회 〉

모임 일정 : 매주 화/목요일,10:00
강의실 : 한인회 강당 1층
지도강사 : 김명지 월화차회 회장
연락처: 720-4211, 0818-491-325

〈 한국어 강좌 〉

강좌시간 : 매주 토요일, 09:00~13:00
대상: 한국인업체 인니종업원 및 인니인
강의실 : 한인회 2층
지도강사 : 김성복
연락처 : 521-2515 / 0815-1177-1899

인도네시아 한인회보

한인뉴스

창간 1996년 7월 15일
발행처: 인도네시아 한인회
발행인: 승은호
편집인: 조규철
편집위원: 김재민, 김은미, 김남규, 최양기, 정무송, 김영민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이메일: haninnews@naver.com
http://www.innekorean.or.id

이 번 호 이 야 기

2009 . 3 (통권 153호)

10 **한인사회 소식**
- 이명박 대통령 내외,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 한-인니간 녹색기술, 녹색자원 파트너 제안
- 이명박 대통령, 인니 동포간담회 열어 -
- 이명박 대통령, 교민 봉제업체 PT. BPG 방문
- 영부인 김윤옥 여사,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방문
- 『상생과 공영』, 통일의 지름길입니다.
- 한국대사관, 자카르타 경찰청장 예방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신광업법 세미나 개최
- 김수환 추기경 고히 잠드소서
- LG전자 홈시어터, '최우수 디자인 대통령상'
- EAGLE, 인니 최고 제품으로 선정
- 코린도 장학재단, 인니 유학생 지원
- '해피자카르타'가 두 돌이 되었습니다.
- JIKS 책마루 도서관 오픈
- 또 하나의 민간외교 "龍武道"

25 **별과 달이 비추는 오지의 마을** 병 고치러 갔다가 오히려...

28 **인터뷰 이사람** 이기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32 **김효영원장의 건강칼럼 천연 피로회복제 '나나스'**

34 **시사포커스 11 지한파, 친한파**

38 **유춘강의 긍정칼럼** 굿 이브닝 인도네시아!

40 우리짱 니콜라스의 체험영어 10 나의 이름은 9개

44 한국말로 말해요 행복과 스트레스

46 **법률상식** 인도네시아 신광업법(3)

50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소식

51 드라마에서 퍼올린 바하사~

54 방치영의 노무/인사 칼럼 **합리적 근태(勤怠)관리**

58 **BOOKS**

61 중소기업 위한 기술보호 실무 가이드.3

66 **MOVIES**

68 **경제 리포트**

72 **생활정보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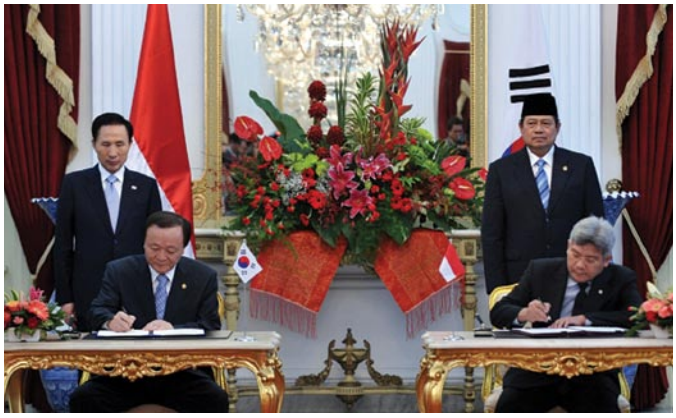
76 3월 공지사항

이명박 대통령 내외,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지난 3월 6일 이명박 대통령이 뉴질랜드, 호주를 순방하고 마지막 순방국으로서 인도네시아를 국빈방문했다.

6일 오전 11시경 할림 국제공항에 도착한 이명박 대통령은 인니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후 바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산림 바이오에너지 산업육성, 인도네시아 내 20만ha 조림지의 추가확보, 지하자원 개발 프로젝트 참여 등 양국간 에너지-자원분야 협력방안을 심도깊게 논의하고 에너지•자원 분야를 비롯한 경제 분야에서 실질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의 정상회담은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문제에 공동 대처하는 '녹색성장' 실현에 맞춰졌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산림, 천연가스 등 자원과 한국의 기술력을 활용하는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이 대통령과 유도요노 대통령은 교육협력, 과학기술 협력, 산림 바이오매스 산업 육성 협력 등에 관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 정상은 또 한국 최초의 해외유전 개발사업인 서마두라 유전광구 계약 연장건이 타결될 수 있도록 긍정 검토하기로 했다.

인니방문 둘째날엔 수행경제인들과 조찬 간담회를 열고, 칼리바타 영웅묘지 참배, 아궁 락소노 국회의장 면담, 한-인도네시아 CEO비즈니스 다이얼로그 오찬, 현지진출 교민 의류업체인 PT. BPG 방문, 인니 동포간담회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



한-인니 양국은 지난 3월 6일 정상회담 직후 이 대통령과 유도요노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육협력, 과학기술 협력, 산림 바이오매스 산업 육성 협력 등에 관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진은 산림 바이오매스사업 육성협력 양해각서 서명 장면.

특히 이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날인 8일 아시아지역 공관장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미•일•중•러 등 주변 4강에 치중됐던 외교지평을 아시아 국가들로 넓히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신(新)아시아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호주, 인도네시아의 3각 관계가 유기적이면 우리의 국가 위상을 높이고 실용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아시아 시대가 예고된 만큼 금년에는 이웃하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구상은 직면한 글로벌 경제위기의 동력을 아시아에서 찾고, 아시아의 주도국으로 부상해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인니간 녹색기술, 녹색자원 파트너 제안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자카르타 퍼시픽 플레이스에서 개최된 「한-인니 CEO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오찬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방향을 제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그간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에너지자원과 인력,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상호 보완적으로 양국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는 Win-Win의 성과를 거두어왔다고 평가하고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준비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의 녹색자원과 한국의 녹색기술의 결합을 통해 양국이 다가올 녹색시대에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가 되기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조림 및 바이오에너지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 청정에너지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정보통신과 문화교류 확대 등을 제안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에너지 분야에서 산림바이오에너지산업 협력을 위해 양국 간 산림협력센터를 설립키로 하고, 바이오메스 발전소 건설, 해양바이오에너지 시범사업 등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서마두라 광권계약이 연장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한편, 유연탄, 유전 등 자원개발 프로젝트 및 화력발전소 건설 등에도 적극 참여키로 했다.

사진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나경환)과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Widi 차관) 간 해양바이오 기술 및 해양환경 개발 MOU 체결식. Mari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 이윤호 한국 지식경제부 장관, Sri Mulyani 재무부 장관 (뒷줄 왼쪽부터)

한편 오찬에 앞서 열린 CEO 다이얼로그 포럼에선 한국측에서 손경식 대한상의회장 등 경제단체장을 비롯, 구본준 한-인니 경협위원장 등 경제사절단과 현지 기업인 등 15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유숩 칼라 부통령, 경제조정부 장관, 무역부 장관, 용키 수기야토 한-인니경제협력위 위원장을 비롯하여 100여명의 정부관계자와 기업인이 참가해 양국 관계기관간 9건의 협력약정(MOU)이 체결되었다.

긍정적 사고·적극적 실천으로 위기극복

– 이명박 대통령, 인니 동포간담회 열어 –

이명박 대통령의 인니 국빈방문 이틀째인 지난 3월 7일 이명박 대통령은 자카르타 리츠칼튼호텔에서 교민 300여명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간담회장에 모습을 보이자 교민들은 뜨거운 박수로 대통령 내외를 맞이하고 화동들이 예쁘게 준비한 꽃다발을 선사했다.

이 대통령이 자리에 안자 승은호 한인회장은 인사말로 "70년대 후반 100킬로미터가 넘는 자고라위 고속도로를 직접 건설한 이명박 대통령이 어는 누구보다도 인도네시아에 대해 잘 아실거라 생각하며 한–인니 양국 산림분야 협력관계가 더욱 증진된다면 대통령이 원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을 직접 돕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전하고 글로벌 위기 속 어려움에 있는 교민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해 준 대통령에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교민들을 위한 격려의 말씀이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먼저 인니 교민들은 '아주 특색있는 분들이다'며 대한민국과 인니 정,부통령이 한 목소리로 말하듯 인니 경제에 큰 보탬이 되는 보배 같은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석유 매장량이 무한정 있더라도 쓸 수 없는 시대가 왔다"며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경제적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인니에 한국기업들이 많은 나무를 심어 탄소배출량 확보와 이를 통해 한국 산업발전 가속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교민기업들이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대통령은 '임기 중 한국을 일류국가 로만드는 것이 목표다'며 현재 정치,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이 요소들이 우리 사회내에 존재하고 있지만 긍정적 사고와 적극적 실천으로 이를 잘 극복해 나간다면 이 위기가 끝나고 새로운 시기가 올 때 일류가 될 수 있는 토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대 통령은 "지난해 4강 외교와 한중일 3개국, 한,미,일에 이어 이번 호주, 인도네시아, 한국 세 나라가 또 중요한 축이 됐다"며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외교상의 입장도 그렇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발언권이 좋아질 것같다"고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교민들에게 '조국에 대해 긍지와 희망을 갖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존경 받는 기업인과 한국인이 되기'를 바랬다.

이어 김광현 민주평통 서남아협의회 회장의 건배제가 있었고 잠깐의 환담 뒤 대통령에 바라는 건의사항이 전달됐다. 건의 사항으로는 1) 4만여 교민수, 한인니 경제규모, 한류열풍에 대한 현지인 관심 등을 볼 때 문화원 기능을 뛰어넘는 코리아센터 설립 필요성과, 2) 교민 자녀의 한국어교육과 한국인 정체성 교육을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 3) 교민 2세들의 미래 경쟁력 있는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국내 성장산업과 기술을 접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제도적, 제정적 지원책이 제안되었다.

이에 대통령은 1) 중요 이민국에 문화센터 건립 중이고 인도네시아는 2011년도에 완공계획이다. 2) 향후 10년 선진 강국이 된 대한민국과 세계 어느 나라든 거래를 해야만 한다. 미래를 위해 한글을 가르쳐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교민역사가 짧아 심각하지 않는 것 같지만 정부가 더욱 신경을 쓰겠다. 3) 청와대, 지식경제부 등 홈페이지에 오면 전체적으로 자세히 알아 볼 수 있다. 젊으니 직접 발로 뛰고 부딪히면서 배웠으면 한다며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 했다.

왼쪽 : 이명박 대통령이 박재한 사장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아래 : 이명박 대통령은 PT. BPG 방문 중 한인 의류업체 대표 10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명박 대통령, 교민 봉제업체 PT. BPG 방문

이명박 대통령은 인니국빈방문 중 한인봉제기업인 PT. BUSANA PRIMA GLOBAL(이하 PT. BPG)를 방문하여 한국 직원과 현지인 직원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박재한 사장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을 돌며 PT. BPG의 주력 품목인 스포츠웨어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시찰 중 현지인 근로자들에게 격려 또한 아끼지 않았고 한국인, 현지인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격려했다.

공장을 둘러본 후 한인 의류업체 대표 10여명과 약 30분간 인니 경제 전반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를 마치고 잠깐의 기념촬영을 하는 시간, 또한 기자들에게 가려 사진 촬영을 못한 직원에게 "사진 찍었어요?"라고 하며 연신 자상한 모습을 보였다.

PT. BPG은 1997년 3월 12일에 설립되어 현재 한국직원 25명, 현지인 직원 5500명이 근무하고 있는 중견기업체로서 주 BRAND인 le coq stortif, PING, FILA, HAGGAR, ECKO 등에 OEM방식으로 수출하고 있다. 또한 회사 내에 자체 자수실(2000년 설립)과 프린트실(2002년 설립)을 보유함으로써 다양한 BRAND 개발에 신속히 대처하여 BUYER가 요구하고, 소비자들의 구매의욕이 생길 수 있는 제품을 위해 ONE-STOP ONLINE SYSTEM을 구축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바이어를 상담하는 다른 기업과는 달리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직접 바이어를 상담하여 경쟁력 있는 가격과 납기로 많은 ORDER를 수주하고 있다. 또한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는 GLOBAL 시대에 걸맞게 기존 의류공장의 납기기준에서 탈피하여, 주문 후 45 DAYS DELIVERY로 LEAD TIME을 단축시켜 바이어의 재고부담을 줄임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인도네시아 내 봉제회사 중 최초로 ISO 9001-2000인증을 취득하였고 WRAP COMPLAIANCE (국제 공인 의류제조업체자격) 인증 획득으로 GLOBAL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자체 LAB TEST 시설도 확보하고 있다. PT. BPG는 모든 종류의 의류는 물론 SPORTS 웨어를 특화 시켜 유럽 프리미어리그에서 착용하는 신소재 제품을 매년 개발하여 직접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MANCHSTER CITY, STOKE CITY, EVERTON, WOLVES 등) 주목 받고 있는 봉제회사이다.

영부인 김윤옥 여사,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방문

이명박 대통령의 환태평양 3국 순방에 동행한 김윤옥 여사는 3월 6일(금) 오후 4시 10분경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학교장 전호신)를 방문하였다.

태극기와 인도네시아 국기를 흔드는 초등 컵스카우트 대원들의 환영과 6학년 전교회장단의 환영의 꽃다발을 받으며 학교방문 일정을 시작하셨다. 이후 브리핑 룸에서 학교 현황 및 학교 교육 중점 활동 등에 대한 소개를 들으시고 자카르타 한인교육에 힘쓰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더하셨다.

곧이어 새로 단장한 책마루 도서관 관람, 중학교 방과후 수업을 참관, 초등학교 합창단의 공연 관람, 이후 대강당에서 12학년 학생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종이 꽃다발 여사님께 드리기, 여사님께 드리는 편지를 낭독하기 등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루었다. 이날 김여사님은 "여러분이 밟고 있는 땅이 한국땅이라는 생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처음에는 인도네시아를 위해, 둘째는 한국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남기셨다. 아울러 "부모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는 말씀 또한 남기셨다.

『상생과 공영』, 통일의 지름길입니다.

– 이기택 민주평통일 부의장 인니방문, 교민 강연회 개최

지난 2월 23일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이하 JIKS)에서는 현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시간을 갖고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현 남북정세를 적극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 뜻 깊은 강연회가 마련되었다.

강연자는 7선 국회의원이고 자유당 독재에 항거 고국의 민주주의를 꽃피우게 한 4.19혁명의 주역이었던 이기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평통) 수석부의장으로 약 두 시간에 걸쳐 현 정권의 『'상생 • 공영' 대북정책과 민주평통의 시대적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정적인 언변을 토했다.

이기택 부의장은 "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떤 정책에 우선한다"고 역설하고 "국민들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중심으로 정부정책을 적극 지지해야 모든 국민의 숙원인 실질적인 통일을 일궈낼 수 있다"며 경청하고 있는 700여 학생과 교민들에게 전했다.

또한 이 부의장은 "정부의 대북정책이 결코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이 아니라 남북이 서로 잘살고 서로 번영해 나가자고 하는 것이 곧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인 '상생과 공영'이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과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남북한 사이 맺은 중요한 합의들을 북한이 전면 백지화 시킨 만큼 북한이 지금부터라도 비핵화를 실천하고 더욱 개방을 함으로써 북한 주민 1인 소득이 연 3000달러가 되어야만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통일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을 이었다.

연 3000천 달러 소득은 초보적 수준의 문화생활 단계로서 현재 40대 1이라는 현저한 남북한의 국력의 차이로 인해 통일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고통과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 정부측의 분석이다.

이어서 이 부의장은 "현재 북한의 한반도 전쟁위기 분위기 조성은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의 관심을 끌기 위한 '상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벼랑끝 전술이다'며 만약의 유혈사태 발생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대비는 있겠지만 북한의 태도에 흔들리지는 않을 정도

(앞 쪽에서 이어짐)

로 튼튼하다"고 전하며 현 한반도 정세에 대한 분석과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한편 이 부의장은 "세계 어느 교민사회보다도 진취적이고 활동적이며 화합과 조직력을 보이는 인니 교민 사회의 모습에 크게 놀랐다"며 "평통이 적극 추진중인 750만 해외통포네트워크 구축과 해외동포 민족자산화를 위해 인니 교민사회가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동포들의 구심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 부의장은 전날(2월 22일) 인니동포 언론인들과의 간담회<간담회 상세 내용은 본지 36쪽 참조>를 통해 언론이 먼저 정부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통일을 위한 모국과 해외동포의 중요한 교량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이기택 부의장은 강연회를 마치고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교장 전호신)에 도서확충 기금 200만원을 기증했다.

한국대사관, 자카르타 경찰청장 예방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안명수 공사는 지난 2. 20(금) WAHYONO 자카르타 시경 청장을 예방하여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대사관의 홍영규 경찰영사와 자카르타 경찰청의 정보, 경비를 담당하는 참모들이 배석했다.

안 공사는 WAHYONO청장에게 한국기업들이 인니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많은 교민이 인니에 거주하고 있는 등 양국간에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니경찰의 교민보호 활동에 대한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특히 대한한국 대통령 방문과 관련 경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교민들의 경미한 법규위반에 대해서는 불입건하고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요청하고 특히 도착비자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경찰과 이민청의 해석이 다른 부분에 대하여 관련 기관간 사전 조율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하게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장은 기관간 법률해석이 다른 부분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교민관련 형사사건은 대부분 교민상호간에 발생한 분쟁인 바, 대사관과 초기단계부터 긴밀한 협의 등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앞으로도 대사관에서는 평소 경찰관계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교민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대사관 대표전화 021) 520-1915,
당직전화 0811-852-446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신광업법 세미나 개최

– 자원민족주의 '신광업법', 오히려 자원확보 위한 투자 기회 될수도

지난 2월 19일 자카르타에 위치한 리츠칼튼호텔에서 KOTRA 자카르타무역관(센터장 김병권) 주최로 지난해 말 발효된 신광업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위한 세미나가 광업관련 교민 200여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밤방 스띠아완 광업부 차관의 신광업법 키노트로 시작된 금번 세미나는 인니 에너지 천연자원부가 준비한 '신광업법과 미래 광업 전망', 이승민 변호사의 '한국투자가 입장에서 신광업법 고찰', 산업부가 준비한 '광업제품 가치 증진을 위한 노력'에 대한 주제발표가 두 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스띠아완 차관은 "광물·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고용기회와 부가가치를 높기 위해 신광업법을 제정·발효했다"며 "한국기업을 포함 많은 외국기업들이 광물의 제련을 비롯한 가공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자원광업부 국장은 "향후 인니 에너지 공급 중 석탄의 비중이 매우 커질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석탄의 국내 수요 충족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 수출을 할 것이다"고 전해 '자원민족주의'를 기본 컨셉으로 한 '신광업법'에 대한 이해를 극명하게 나타냈다.

이승민 변호사는 신광업법이 오히려 후발주자인 우리 기업에게 새 규정을 잘 활용할 경우 광물 가공 및 정제분야의 신규투자와 국가적 차원의 자원확보를 위한 좋은 투자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에너지 확보를 위한 국가간의 경쟁이 활발해 지고 있는 지금, 기존 광법회사의 지분인수가 가능하고 또한 광업회사 양도가능(광업사업허가서 발급자에게 통보 및 관련 법규의 조건 충족시), 신규광업 사업허가서 획득 가능, 외국인의 100% 지분 보유 가능해진 '신광업법'이 자원확보의 좋은 기회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전했다.

구 광업법 Vs 신 광업법

구 광업법과 신 광업법의 가장 두드러진 형식적인 차이는 구 광업법에 있는 KK 와 PKP2B를 없에 버리고 신 광업법에서는 광물과 석탄 광업을 사업허가제로 바꾸고 사업허가제에 경매제를 도입했다. 여러 종류 여러 단계의 광업 사업허가서를 광업 사업허가서(Ijin UsahaPertambangan/IUP)와 소규모 광업허가서(Ijin Pertambangan Rakyat/IPR)와 특별광업 사업허가서(Ijin Usaha Ppertambangan Khusus/IUPK)로 3 개로만 구분하고, 광업 사업허가서는 광업 시추허가서(Ijin Usaha Pertambangan Eksplorasi/IUP Eksplorasi)와 광업 생산활동허가서(Ijin Usaha Pertambangan Operasi Produksi/IUP Opersai Produksi)로 단순화하고, 특별 광업 사업허가서도 특별 광업 시추허가서(Ijin Usaha Pertambangan Khususu Eksplorasi/IUPK Eksplorasi)와 특별 광업 생산활동허가서(Ijin Usaha Pertambangan Khusus Operasi Produksi/IUPK Operasi Produksi)로 인허가를 단순화시켰다. 인허가는 단순화시켰으나 광업에 대한 정부의 지도 및 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시켰다. 40(사십)여년 전에 제정된 광업에 관한 1967년 법률 제11호("구 광업법")는 글로벌화 영향으로 나타난 민주주의 대한 열망, 인권 문제, 환경 문제, 기술 및 정보 발전 문제, 지적재산권 문제, 사기업과 사회의 역할 문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문제 등에 대하여 적절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구 광업법을 아예 폐기하고 신 광업법을 제정했다. (한인뉴스 2009.1월호)

김수환 추기경 고히 잠드소서

– 한인성당서 김 추기경 선종 추모미사 열려

한국 천주교의 정신적 지주인 김수환 추기경이 지난 2월 16일 선종(善終)했다. 하느님의 종, 시대의 양심, 그리고 혜화동 할아버지로 불리며 가난하고 핍박받는 이웃을 위해 87년의 생을 살다간 그를 기리기 위해 명동성당은 조문객의 줄이 끝이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인도네시아 교민사회에서도 고인이된 김수환 추기경에 애도를 표하고 그의 생의 의미를 기리기 위한 추모미사가 남부자카르타에 위치한 한인성당에서 지난 2월 20일 열렸다.

천주교, 기독교, 불교 등 종교의 구분이 없이 추모미사에 모인 300여명의 교민들은 국화꽃으로 둘려싸인 영정앞에서 고개숙여 합장하고,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고인의 뜻을 가슴깊이 새겼다.

1922년 5월 대구에서 출생한 고 김수환 추기경은 1951년 사제서품을 받았고, 1966년 초대 마산교구장을 거쳐 1968년 대주교로 승품한 뒤 서울대교구장에 올랐다. 1969년 당시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한국인 최초 추기경으로 서임된 고 김수환 추기경은 1998년 정년 75세를 넘기면서 서울대교구장에서 은퇴했다.

LG전자 홈시어터, '최우수 디자인 대통령상'

LG전자 이기주 부사장(왼쪽)이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니대통령으로부터 〈최우수 디자인상〉을 받고 있다.

LG 전자 홈시어터가 인도네시아 굿디자인 시상식에서 「최우수 디자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주관하는 최우수 디자인 상(Indonesia Good Design Selection)은 제품 디자인과 디자인개발 프로세스, 실제 판매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시상하는 최고 권위의 디자인 상이다.

이번에 대통령상을 수상한 LG전자의 홈시어터(모델명: LHT-3602ME)는 인도네시아 고객에 대한 철저한 인사이트 발굴을 통해 개발된 제품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의 성공을 기반으로 현재 동남아와 호주 등 10여개 국에 수출되고 있다. 이 제품은 협소한 인도네시아 일반 가정의 특성을 감안, 홈시어터 사용 환경을 최적화해 개발됐다. 방의 앞쪽과 뒤쪽에 스피커를 배치하는 일반적인 홈시어터와 달리 스피커를 전면에 배치했으며, 필요에 따라 스피커를 떼고 붙일 수 있게 설계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젊은 층에 인기 있는 댄스뮤직인 '당듯(Dangdut)'을 감상하기에 알맞게 중저음을 강화함으로써 고객선호 음질을 구현했다.

최우수 디자인상을 받은 홈시어터(LHT-3602ME)

LG전자는 고객 인사이트를 반영한 홈시어터 개발을 위해 현지 대학과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전개하며, 고객의 집을 수시로 방문해 제품 사용환경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수많은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제품을 개발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LG전자 홈시어터는 시장점유율 39%로 경쟁업체와 15% 이상의 격차를 벌이며 확고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LG전자 인도네시아법인장인 이기주 부사장에게 직접 상을 전달하며, "인도네시아 문화에 적합한 하이테크놀러지 제품과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줄 것"을 당부했다.

LG전자 이기주 부사장은,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경제블록화가 심화되는 환경에서 고객인사이트 발굴을 통해 현지시장에서 확고한 브랜드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LG전자 인도네시아 법인은 앞으로도 고객 환경과 니즈를 철저히 파악해 제품화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시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 인도네시아 법인은 06년과 07년 2년 연속 인도네시아 '최우수 수출기업상'을 수상했으며, 08년에는 '최우수 투자기업상'을 수상한데 이어 이번 굿디자인 최고상 수상을 통해 인도네시아 국민브랜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LG전자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홈시어터, 냉장고, 모니터, 에어컨, 세탁기, 오디오 등이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등 국민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다.

EAGLE, 인니 최고 제품으로 선정

2009 신발·피혁 전시회서 **최고 품질, 혁신적 디자인으로 최우수 제품상** 수상

2009년 신발, 피혁 전시회가 최근 2/12 ~ 15일 Hall A Balai Sidang Jakarta (JCC)에서 열렸다. 인도네시아 공업부에서 주최하는 이 전시회는 60여 개사가 참가, 2,000m2 전시 면적에 200여 개의 Booth가 설치 되었다.

Abu Rizal Bakrie 조정장관, Fahmi Idris 공업부 장관, Mari Elka Pangestu 상무장관을 비롯 5개 부처의 장, 차관 및 무역관, 2,000명 이상의 바이어가 초청 되었으며, 일반 소비자도 10,000명 이상 참관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신발, 피혁전은 국내 유명 브랜드 업체들이 참가해 신발부문 (완제품, 원부자재 등)과 피혁부문, 2개 부문에 걸쳐 다양한 신상품과 기술을 선보였다.

> **'품질과 현대성'**
> **브랜드 가치로**
> **최고품질, 혁신적 디자인제품**
> **계속 선보일 것임**

이번 전시회에서 인니에서 런칭 후 23년간 내수 스포츠화 브랜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Eagle"은 30여 점의 신모델을 소개, 혁신적인 기능과 우수한 디자인 및 품질로 호평을 받아 공업부 장관으로부터 스포츠 신발부분 최우수 제품상을 수상 받았다.

전시회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Casual Sneakers 'SUPERBIKE'는 발바닥의 모양과 최대한 일치하도록 Arch 부분을 보강하고, 보행 시 상대적으로 힘과 충격을 많이 받는 Heel (뒤꿈치) 부분에 충격완화 소재를 추가함으로써 발의 피로도를 최소화 하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었다. 또한 두 가지 톤의 색상이 어우러져 은은한 빛을 발하는 최고급 합성피혁이 사용되어 기능성뿐만 아니라 멋스러움도 더했다.

또한 Sports Performance Shoe 의 D-MAX 시리즈 중 축구화/풋살화는 기존 축구화의 틀을 깨고 Upper 부분의 Stitch 라인을 최소화하고 초 경량/고 탄성 소재를 적용, 공을 찰 때 마찰가속을 더욱 증대시키도록 설계하여 기존의 제품보다 더욱 가벼우면서도 안정감 있는 볼 컨트롤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번 수상은 국내 신발브랜드 (스포츠, 제화) 중 가장 혁신적인 디자인은 물론 기능성, 품질, 개발 프로세스, 적합한 소재와 디자인 결정, 실제판매 등의 요소를 고려한 결과 가장 2009년 괄목할 만한 제품으로 Eagle이 선정 했다는 후문이다.

Eagle (PT. GF INDONESIA) 김원관 사장은 "Eagle은 품질과 기능성이라는 중요한 브랜드 가치로 소비자의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Trend Setter로서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좋은 품질과 혁신적 디자인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다"고 강조 했다.

코린도 장학재단, 인니 유학생 지원

- 연세대 학부 1명, 세종대 대학원 1명

코린도장학재단(이사장 정무웅)은 2월 12일 오후 3시 코린도 홍보관에서 2명의 인도네시아 유학생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장학증서에는 수업료 외에 생활비와 왕복항공료가 포함되어 있다.

장학증서를 받은 학생은 1년간 연세대학교 학부 교환학생으로 유학하게 될 인도네시아 대학교에 재학중인 Widiasari 양과 인니 산림청 직원으로서 2년간 세종대학교 대학원 MBA 과정에 수학 할 Dwi 군이다.

정무웅 코린도장학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학업 외에도 많은 활동을 통하여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인도네시아에 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Raphaella 인도네시아대학교 국제협력처장은 답사에서 연세대 및 코린도그룹에 감사의 말을 전했으며 인니 산림청 Apik 국장은 양국간의 경제협력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하였다.

코린도그룹에서 지금까지 지원한 유학생은 세종대학교 대학원에서 이미 수학을 마치고 귀국한 학생이 11명이며 연세대학교 학부과정에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학생은 6명이다. 코린도장학재단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을 한국으로 보낼 예정이다.

'해피자카르타'가 두 돌이 되었습니다.

지난 2월 22일 저녁 6시, 자카르타에 위치한 한인연합교회에선 인도네시아 최초 한국어 라디오 방송인 '해피자카르타'(대표 신정일)의 방송 2주년을 축하하는 감사예배가 있었다. '해피자카르타'는 FM 100.6 Heart Line을 타고 2007년 3월 5일 3명의 스텝들로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7명의 고정 제작진과 많은 패널들이 폭넓은 참여를 하고 있는 사랑 받는 방송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2주년 축하를 위해 모인 자카르타 각 지역 교회성도와 방송관계자 200여명은 이날 예배와 기념행사를 통해 교민인구수 4만에 달하는 교민사회에 유일한 한국어 라디오 방송으로서의 '해피자카르타'의 중요한 역할을 기대했고 앞으로 더욱 폭넓은 교민들이 참여하고 사랑을 나누는 방송국으로 자리매김해 주기를 바랬다.

지난해 12월, 창단 3개월 만에 음악회를 열어 수준 높은 하모니를 선보인 '해피자카르타' 합창단의 아름다운 찬양이 행사장에 울려 퍼졌고 장영수 한마음 교회 목사의 '지붕 위에서 외치라'는 설교가 이어졌다. 곧이어 '해피자카르타' 대표인 신정일 목사는 2년간 걸어온 '해피자카르타'의 발자취와 좋은 기억들을 전해줬다. 신정일 목사는 "고작 3명으로 시작된 방송 제작팀이 지금은 7명의 제작팀원과 많은 특파원, 그리고 30여명의 '해피자카르타합창단'원을 포함한 대 가족이 되었다는 점과 여러 코너들을 통해 방송을 거쳐 간 사람만 해도 500여 명에 이른다는 사실은 함께 만들어 가는 방송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고 전했다. 신 목사는 "방송사역뿐만 아니라 '해피자카르타' 합창단을 비롯, 올해 창단 예정인 청소년 오케스트라, 워십자카르타 등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문화 사역을 통해 교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FM 음역대가 넓지 않

febc 극동방송
HAPPY JAKARTA
녁 6-7시

해피 자카르타 요일 별 편성표

요일	진행자	프로그램
월	김한섭	5분 칼럼/ 자카르타 이야기(성경미)/ 특파원 소식/ 은혜의 강가
화	신정일	성경 맥 잡기/ 김혜자와 차 한 잔을/ 초대석/ 은혜의 강가
수	성경미	믿음의 사람들(홍영리)/ 나의 사랑하는 책
목	홍영리	평안의 오솔길(양명자)/ 바로알고 바로쓰기(김한섭)
금	양명자	땅끝에서(정창렬)/ 찬양이야기(박어진)
토	정창렬	사연과 신청곡/ 사랑의 편지
일	신정일	CCM 앨범 소개

*교민 여러분을 위한 방송, '해피자카르타' 는 매일 저녁 6시에서 한 시간 동안 **fm 100.6**채널을 통해 방송 되고 있다. 방송 전파가 잡히지 않거나 방송 시간에 맞춰 라디오를 듣기 어려운 분들은 '해피자카르타' 홈페이지 **www.happyjakarta.net**을 통해 지난 방송을 청취 할 수 있으며 지난 방송 CD를 원하거나 기타 문의 사항은 전화 **021-9445-0691**번으로 연락바람

아 마음껏 방송을 들을 수 없는 단점을 고려해 Am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방송시간 연장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한국 극동방송 신임 사장 김은기 장로(전 공군 참모 총장)와 지역극동방송 대표 12인이 참석하여 2주년을 더욱 뜻 깊게 했다. 김인기 극동방송 사장은 "과거 공군 재임 시 많은 수행원들에게 최고의 귀빈대우를 받으며 인도네시아를 두 차례 방문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평범한 사람으로 자카르타를 방문하게 된 오늘이 더욱 기쁘며, 2주년 기념의 의미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의미로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실 것이다"고 축하의 말을 건냈다.

참석한 성도들은 약 1시간 정도의 기념 예배를 마치고 연합교회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잔칫집 같은 풍성한 분위기 속에서 음식을 들며 서로 정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한인회 문화연구회 탐방 안내

제 160회 한인회 문화연구회 탐방

일시: 2009년 3월 28일 토요일 9시-12시
장소: Museum Harry Darsono
출발: CITOS (Cilandak Town Square) 스타벅스에서 9시 집결.
회비: 20만 루피아
복장: 검은색, 흰색 또는 단색의 캐주얼
인원: 15명

제 161회 한인회 문화연구회 탐방

일시: 2009년 4월 4일 토요일, 오전 8시-오후6시
장소: 국립박물관, 이슬람 대사원(Mesjid Istiqlal),
멘뗑초등학교(오바마 미 대통령 초등학교 시절)
출발: 오전 8시 코리아센터 출발
회비: 약 25만 루피아

신유희 0818-708-228 / plentyhoki@yahoo.co.kr
사공경 0816-190-9976 / sagong@hotmail.com

JIKS 책마루 도서관 오픈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이하 JIKS)가 보다 넓고 쾌적한 구내 도서관(책마루 도서관)을 확장 오픈하고 지난 2월 17일 정식 개관했다. 개관식에는 승은호 JIKS 재단이사장, 김호영 대사, 전호신 교장 및 한인회 임직원과 교사, 학생들이 참석했다.

기존 구내식당 2층에 자리했던 도서관은 늘어나는 양서와 비좁은 공간으로 인해 지난해 신 도서관 설계 및 올해 초 약 한달 반 동안의 공사를 거쳐 한글도서 21,000여권, 영문도서 4000여권 등 총 25,000여권을 소장하게 된 새로운 도서관이 마련된 것이다.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독서습관을 기르고 더욱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됐다.

JIKS 책마루 도서관은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내 복지관(정문에서 들어서면 왼쪽 첫 번째 건물) 2층에 자리 잡고 있고, 장서는 초등용 도서와 중고 학부모를 위한 도서로 나뉘어져 있으며, 문학, 종교, 사회과학, 과학, 예술, 언어, 역사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가 준비되어 있으며 학생들의 수업에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또 하나의 민간외교 "龍武道"

승단심사를 마치고 장병들과 기념촬영

지난 1월 21일 술라웨시 마카사리 군사령부 내 실내체육관에서는 세계 용무도 연맹과 인니 육군 전략 사령부 공동 주관으로 특별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700여명의 장성들이 4개월간 갈고 닦은 종합 무예 실력을 세계 용무도 연맹 김병천 회장을 비롯한 5명의 용인대 용무도학과 교수 심사단 앞에서 승단 심사를 치루는 것으로서 양국 간 또 하나의 새로운 민간외교의 장이 되었다.

작년 10월 인도네시아 국군의 날 행사에 한국 용인대학교에서 파견된 코치 2명에 의해 숙련된 700여명의 일사불란한 용무도 시범을 관전하고 깊은 감동을 받은 SBY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군 전술에 유용한 용무도를 군에 보급하라는 지시에 따라 인니 최초로 사령부내 700명이 정식 수련에 참가하게 되었고, 그중 수련 성적이 뛰어난 장성들을 대상으로 승단 심사를 하게 되었다.

이날 육군 전략 사령관 GEORGE TOISUTTA 중장이 직접 승단 심사에 참가하여 명예3단을 수여 받았으며, 부사령관인 HATA 소장이 명예 2단과 함께 초대 인도네시아 용무도 협회장으로 추대되어 향후 인니 용무도 보급에 선봉장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응시자 700여 명 중 470명이 승단심사에 합격하여 명예로운 단증과 함께 검은 띠를 수여받았다.

별과 달이 비추는

오지의 마을

뱅 고치러 갔다가 오히려...

글/사진 김성월

자신이 앓고 있는 병, 낫고자 하는 마음은 어느 나라건 인간에게 있어 가장 절실함 일 것이다. 작게는 아무리 먼 거리를 가서 오래 기다린다 할지라도 진료 받아 나을 수만 있다만,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감수하려 할 것이다. 심지어는 희망과 사망이 반반이라 해도 희망에 도전해 보는 이들도 있지 않는가.

요즘 인도네시아에서는 생수만 마셔도 낫는다는 루머(?)가 떠돌고 있다.

내가 현장에 갔을 때 뽀나리는 만날 수가 없었다. 경찰들과 마을 사람들의 경계가 삼엄했다. 마치 나라의 높은 양반이 머무는 곳처럼. 그래서 함께 놀았다던 친구 두 명을 만났다. 그날 놀다가 생긴 일을 눈이 커다란 바구스(초등3)에게 물어 보았다. " 뽀나리가 갑자기 소리 질렀어요. 머리에서 연기가 났고 그 때 노란색 돌멩이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 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 다음날 또 뽀나리를 만나서 놀았니?" 바구스는 고개를 저었다. 다음날부터 뽀나리는 학교에 오지 않았고 아프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뽀나리는 머리에 맞은 돌을 가지고 왔다. 그 후 온 몸에 열나기 시작하였는데 어머니는 머리에 맞은 돌 때문이라며 그 돌을 버렸다. 조금 후 돌아오니 버린 돌이 그 방에 다시 와 있었다고 한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와서 설사 한다 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돌을 컵에 넣고 물을 마셨더니 설사가 멈췄다. 중풍인 사람의 다리를 돌로 문지르고 같은 방법의 물을 마시자 걸을 수 있었다고 뽀나리 아버지가 말했다. 직접 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면서도 상식을 쌓아 둔 내 머리통이 갸우뚱거리기 시작했다.

뽀나리에게 진료 받기위해 모여 든 일부분의 사람들

아무튼 이렇게 시작된 소문이 보름 전부터 입에서 입으로 마을에서 도시로 퍼져 나갔다. 벼락맞은 돌을 담근 물을 마시면 무슨 병이든지 나을 수 있다는 말은 인도네시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게다가 진료 비는 거의 공짜다. 공짜라는 말과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는 그 루머는 질병의 늪에서 갈팡질팡하는 환자들에게 더 없이 희망을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나도 빨리 나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어떤 환자는 자전거를 한 시간이나 타고 와서 두 시간 기다리다가 목숨을 잃었다. 또 많은 사람들의 밀고 당김 속에서 힘없는 오십대 중반 여자가 목숨을 잃었다.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백배는 강력하다는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는 사실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은 그저 뉴스에 나오는 남의 일이지만 병이 나았다는 소문은 곧 나의 병도 나을 수 있다는 것 때문일까.

환자들은 하루에 수십에서 수백 수천을 넘어 몰려 들기 시작하였다. 논으로 둘러 쌓인 마을에 갑자기 그렇게 많은 방문자들이 생기자 여기저기 도로가 파손되었다. 경찰서에서 도로 복구 작업하는 삼일 동안도 진료 중단시켰고 그 동안에도 사람들은 몰려들었다. 마을에서는 대책위원회가 생겨나고 관내의 군인 경찰 백여명이 동원되었다.

생수만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위생상 문제도 있고 또 사람들의 몸씨름으로 사고가 생기자 관내 보건소 직원들이 나와 앰블란스

까지 대기시켜 놓고 있었다.

진료가 시작되기 전날 미리 와서 민박하는 이들도 많았다. 현지인들이 민박이라면 내가 보았을 때는 노숙이나 다름 없었다. 공사 중인 사원 바닥이나 비를 피할 수 있고 돗자리 펴서 누울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밤을 지낼 수 있는 공간이다.

많은 사람들이 낮잠을 자고 있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타지에서 왔는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틀을 기둥만 세워진 사원 바닥에서 지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진료 받을 수 있는 번호표를 받지 못하였다고 했다. 자카르타에서 온 아주머니에게 좋은 병원 놔두고 왜 하필 시골로 왔느냐는 짓궂은 물음에 병고침 받으려고 한다는 당연한 대답을 들었다.

다음 날 나는 다시 그 현장으로 갔다. 진료 받는 곳에는 구름 떼처럼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그 중에 운 좋은 이들은 하룻밤자고도 진료 받을 수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물을 담은 통을 들고 있었다. 그 물통 속에는 주민등록등과 운전면허증 또 사진이 들어 있었다. 우선 보기에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은 코팅이 잘 되어 있어 그래

도 괜찮은 것 같았지만, 식구 수대로 담긴 사진의 색깔은 이미 물속에 용해되고 있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하고 있었을까.

돌을 담근 물만 마시면 낫는다기에 이웃집 환자들이 물까지 받아가려는 속셈이었던 것이다. 물 담긴 통을 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부딪혔는지 물은 반 가량 남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한번만 더 부딪히면 다 쏟아 질 것 같은 물컵을 들고 있었다. 땀냄새 질펀한 인파 속을 뚫고서 기왕이면 큰 통을 가지고 기다릴 것이지 그들의 융통성에 내가 안타까웠다.

사회자의 마이크 소리가 조용하다. 어머니 품에 안긴 소년 뽀나리가 나타났다. 작은 손에 그 신비의 힘을 가졌다는 노란색 돌멩이를 들고 사람들의 들고 있는 물통 속으로 첨벙 적셨다가 꺼냈다. 이런 방법으로 5분만에 육십 여명의 의자를 지나갔다. 그리고는 경찰 아저씨는 뽀나리가 아파 더 이상하지 못한다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버렸다. 기다리던 사람들의 눈빛은 상상에 어떠하였을까.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빚어진 교통 혼잡 때문에 마을 입구에서 왕복 3km나 걸어 다녀야 했다. 멀쩡한 나도 피곤하였는데 환자들은 컨디션은….

이틀을 그 현장에 갔었지만 병이 나았다는 사람은 만나지 못했다. 다만 '낫았단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지. 그러나 오전에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삼일을 기다리다 견디지 못해 목숨을 잃었다. 인도네시아 국내 신문에서도 '나은 사람은 미스테리하지만 죽은 사람은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과 종일 있으면 별별 이야기 다 들었다. 얼마 전에 죽은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소문에 빨리 낫고자 블리따르에서 한 시간 자전거 타고 와서 두 시간 기다리다가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작열하는 태양을 머리에 이고 한 시간을 달린 환자, 성한 사람도 견디기 힘들 터인데....

내가 마을을 떠나 올 때 기다리고 있던 보건소 앰블란스가 세 번째로 푸른 들판을 가르며 지나갔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 일면에 그곳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이제는 총 네 명이다.

뽀나리 마을에는 오일 장터 같으면서도 잔치 분위기였다. 아니 시골 사람들에게 경사가 났다고 해야 되겠다. 전에 없던 와룽들이 잔뜩 들어 서 있었고 알맹이 세개 띄운 멀건 바소 한 그릇에 12.000 루피아까지 했다. 바소 한 그릇에 그 정도는 싼 값일지도 모른다. 시골 도로변에 잠시 몇 시간 주차해도 7천 루피아를 받으니 말이다. 각지에서 몰려 든 환자들 병원에 갈 돈이 없어 왔다고 했는데 그곳에 머물면서 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돈도 작지만은 않았다. 구름 떼처럼 모인 사람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낫고자 하는 소망이 이루어지길 나도 바란다.

벼락 맞던 날처럼 한창 뛰어 놀고 싶을 나이의 뽀나리, 신비의 힘을 가졌다는 이유로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집안에서 지내야만 하는 뽀나리. 그의 친구들은 면역성이 강한 알몸으로 구정물 흐르는 개울에서 가무잡잡한 알몸과 하얀 이를 드러 내놓고 멱감고 있었다.

인터뷰 이사람

이기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통일정책'을 아시나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에게 올 2월 고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남북한 위기 상황은 통일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을 줄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한 의욕마저 상실시키고 있어 보인다. 이러한 혼란이 어디에서 기인하고 그 끝이 어디인지 명쾌한 해답을 찾는 것 자체가 넌센스로 비쳐지고 통일을 조국의 숙명으로 여기지만 국민은 정부의 통일 정책에 관한 이해가 미비한 것 또한 사실이다.

지난 2월 22일 현 정부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이기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교민 언론(KBS 월드, K-TV, 한인뉴스, 연합뉴스, YTN, 타임인도네시아)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남북통일의 중요한 키워드임을 전했다. 또한 교민 언론인들에게 통일을 이뤄내기 위한 모국과 동포의 중요한 교량역할을 해주기를 바랬다. 다음은 간담회 때 쏟아낸 교민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이기택 부의장의 답변들이다.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목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평통)서남아협의회(회장 김광현)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 수석부의장 취임 후 격려를 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대결관계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가 정부와 해외 동포들간의 강력한 연대의식을 통해 해결해 내자는 취지다. 이러한 연대의식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판단하고 그 중심에 평통이 있기 때문에 직접 인도네시아를 찾게 되었다.

평통의 목적과 활동을 알기 쉽게 설명해달라.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이하 평통)는 헌법에 의해 설립된 헌법기관이고 29년이 되었다. 평통(의장 이명박 대통령)의 역할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역할(정부정책홍보 통해 국민동의를 얻어내거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견 수렴하고 소화하여 정책화함)을 하고 있다. 금년 평통은 활동범위를 확대하려 한다. 총 1만7천여 명의 평통회원 중 3000여명을 차지하는 해외거주 평통위원의 비중을 늘리려고 한다. 또한 100인 이상 교포들이 거주하는 곳엔 평통지부를 두어 현재 47개 해외 평통지부를 100여개까지 늘려 교포들의 대북통일정책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의견과 여론을 수렴할 것이다.

그 외에 평통은 사단법인인 '남북나눔공동체'를 통해 대북사업을 한다.

첫째로 북한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한 사업으로서 북한에 어린이 이유식 분유공장 설립했고 현재 가동 중이다.

또한 국내의 탈북자 수 15,000여명, 입국을 기다리는 탈북자 수만도 10만 여명 추산되어 앞으로 통일과정에서 탈북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 탈북자 1 평통위원' 의 원칙으로 탈북자를 선도해 나갈 것이다.

한편 평통은 금년도부터 해외네트워크 망 구축 위해 노력할 것이다. 750만 해외동포는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다. 750만이라는 수는 해외이민자 최다수국 중 3위이다. 해외네트워크 망을 통해 정부는 과거보다 효율적으로 동포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현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나?

과거 10년 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햇볕정책'이라는 것은 거의 모든 국민이 잘 알고 있지만 현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는 것 같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권이든 어느 정책보다도 가장 우선되는 정책이 바로 대북통일 정책이다. 통일이라는 명제는 우리 국민 모두의 숙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일을 이루려는 대상이 같은 민족이지만 체제가 다르고 강하며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양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국정 최고의 정책인 통일정책(대북정책)은 국민모두의 지지를 한 몸에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국민은 거의 모르니 대북정책이 잘 풀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평통은 대북정책을 국민에게 자세히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 군, 구 단위로 정부대북정책설명회 개최해 왔으며 자카르타를 방문한 것이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상생•공영'이고 그 정책의 핵심이 '비핵•개방•3000' 이다. 실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남북이 평화를 유지하면서 함께 잘 살고 함께 번영해 나가자는 뜻이다. 사실 전혀 난해한 명제가 아니다.

대북정책의 실천인 '비핵 · 개방 · 3000' 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상생•공영'의 구체적 계획은 통일부가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통일에 접근하기 위해 북한의 수준이 상당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하고 우리측에서는 과거 남북간 합의를 가능한 한 지키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정부는 지난 1년간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사업을 적극 권장해왔다. 개성공단은 상당히 활성화 되었고 취업률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현정부 1년간 북한을 왕래한 인구가 과거보다 늘었으며 금강산 관광객 총격사태 이전까지의 관광객수도 과거 10년간 보다 많은 20만 명에 이른다. '상생•공영정책'의 성과로 볼 수 있다.

만약 남북한 실무협상이 지속되었다면 북한에서 많은 사업이 이뤄질 수 있었을 것이다. 개성공단의 경우 남북한 간의 비교적 성공한 사업이라 평가하고 있다. 북한도 성공했고 남한도 성공했다. 남북간 서로가 윈-윈한 사례이다. 개성공단과 같은 공단을 북한에 하나 더 만들면 남북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북한은 이런 모든 계획을 거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북한체제유지를 위함이고 북한측 입장에서는 안받는 것이 아니라 못 받고 잇는 실정이다.

비핵'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이미 합의한 내용이다. 합의 후 북한이 핵 개발을 시도함으로써 합의를 깼으므로 약속을 지키라는 남한입장에서는 아주 원

칙적인 주장이다. 핵의 존재는 중국, 러시아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평화가 위협받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남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많은 손해를 끼치고 있다.

'개방'이 되어야만 이를 기초로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을 이용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과거 공산국이었던 러시아, 중국, 베트남 등 개방을 통해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있다. 북한도 어느 정도 근대화가 되어야 하고 이것이 북한의 흡수통일 우려를 불식시켜줄 수 있는 키워드인 것이다.

'3000'은 북한 주민의 소득이 연 3000달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는 상호주의 원칙하에서만 이뤄진다. 모든 국민은 북한이 잘 되길 바라지 하루아침에 망해서 흡수통일 되길 바라지 않는다. 3000불 소득은 문화생활의 초보단계이고 남북의 진정한 통일에 접해 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경제수준이다. 현재 남북한 국력의 차이는 약 40대1이다. 지금 상황에서 통일은 양측을 힘들게 할 뿐이다. 한국은 10년간 무상지원을 펼쳐왔지만 체제, 북한국민들의 생활, 개방 정도, 핵 문제 등에 거의 진전이 없었다. 하지만 과거 동서독이 분단에서 통일을 이루기까지 서독은 동독에 무상으로 지원한적이 없다. 반드시 대가를 바랬다. 상호주의원칙을 통해 동독이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렇다면 현 남북위기국면을 어떻게 보는가?

현 정권 출범 후 남한은 다섯 차례 남북 실무자 회의 통해 김대중 정권 때의 6.15 선언과 노무현 정권 때의 10.4 정상선언을 포함하여 과거 합의된 내용들에 관해 실무자들이 다시 협의과정을 통해 실질 성이 있는 부분을 추진해보자라고 원했으나 한번도 성사된 적 없다. 또한 1년 동안 곡물 5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겠다는 제안도 반대했다.

북한은 과거 남북한간의 모든 합의사항 백지화시키고 남북경색을 선언하고 전쟁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으며 그 원인을 현정부의 대북정책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북한을 지금과 같은 전쟁상황의 대결상태로 몰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모습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나?

먼저 북미관계 개선 위해 북한이 과거 유용했던 '벼랑끝 외교전술'을 선택했다고 본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 출범 후 북한측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많은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국가 등에 밀리다 보니 한반도에 전쟁분위기를 조성하여 관심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라 본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현 북한 경제의 상황이 계속 악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 보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는 북한 체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예로,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의 수가 4만 명에 이르며 이들은 상대적으로 고가의 월급을 받는다. 해를 거듭함에 따라 그들의 경제력이 상승하고 있으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타 북한 주민들은 높은 한국 경제력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또한 자유로운 남한의 모습들이 비춰지면서 엄격한 북한사회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탈북자 들이 개인적인 루트를 통해 북한 가족에게 송금을 하고 있는 부분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요인들이 폐쇄적인 북한체제를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국면을 위해 한반도를 전쟁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본다. 남한 정부는 유혈사태까지의 가능성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런 국면에 대한 국민들의 정확한 이해와 지지가 어려운 대북관계를 풀어내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통일 열망은 항상 컸다. 북한의 통일 열의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북한에는 두 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는 북한 인민들이 북한 정권을 지지하여 힘을 실어줘야 한다. 하지만 현재 북한 정권에서는 주민들이 인권뿐만 아니라 생활도 보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점점 주민들과 거리가 생기고 있다고 본다.

또 하나의 과제는 북한도 대등한 입장에서 통일문제 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이기택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교민 언론(KBS 월드, K-TV, 한인뉴스, 연합뉴스, YTN, 타임인도네시아)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남북통일의 중요한 키워드임을 전했다.

의 하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40대 1 이라는 국력의 차이로 인해 통일이 '구호'로는 성립이 되지만 실질적 통일문제에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구호는 통일이고 진정한 통일은 상당한 후로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관해 북한은 남한 측의 친북세력의 상당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듯 하지만 정치와 경제의 기본 틀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튼튼한 남한의 상황에서 이러한 기대는 오산에 불과하다고 본다.

해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평통의 구체적 안이 있나?

글로벌네트워크는 통일문제뿐만 아니라 정보교환, 협조도모 등을 통해 해외동포 발전을 위한 정부의 효과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한 것이다. 또한 글로벌네트워크는 해외동포들의 탈 국가관 및 조국이탈 현상, 국내 무관심 현상들을 방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모국과 해외동포사회의 연결고리를 형성해주면서 동포들이 모국과 가까워 질 수 있도록 시의를 풀어주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북한인민공화국, 750만 해외동포라는 세 개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문제는 상당한 시간 필요하고 예측의 어려움이 있지만 해외동포에 대해선 정부의 노력에 따라 글로벌 시대에 네트워크를 제대로 구성하기만 하면 조국의 자산화와 동시에 더욱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의 발전이라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을 가장 미워한다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 우리가 짧은 역사 속에서 소위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건설하고 세계가 대한민국을 기적의 나라라고 칭송하는데 이러한 국력이 그냥 이뤄진 것이 아니다. 우리의 근면성과 뛰어난 두뇌, 탁월한 신속성 등이 모여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뤄진 것이다. 해외 동포도 세계화 시대 이번 경제적 위기만 극복한다면 지금의 경제위기가 우리나라의 격이 한두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한다.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는데 우리의 가장 큰 흠이 바로 분열의 문제이다. 정부를 신뢰하여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뤄낼 수 있다면 우리민족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우수한 민족이 될 거라 믿는다.

4만여의 인니 동포들 중 어려운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동포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희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맘이 든든해진다. 현재 정부는 세계 750만 해외동포의 노력을 잊지 않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들의 힘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룩됐듯이 지금의 세계경제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면 대한민국의 격이 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감사합니다.

천연 피로회복제 '나나스'

글: 김효영 솔한의원 원장
vitavic@naver.com/ 021-7278-7410

열대지방에 살면서 최대의 혜택은 뭐니 뭐니 해도 맛있는 열대과일을 사시사철 내내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인애플 역시 잘 알려진 열대과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반둥산 파인애플이 아주 유명합니다. 반둥 온천으로 가는 산길을 따라가다 보면 길옆 가게에서 앙증맞게 묶어 놓고 파는 걸 쉽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파인애플보다 반둥에서 산 파인애플은 '파인애플=시다'라는 통념을 깰 정도로 신맛은 찾아볼 수 없으며 입에서 살살 녹을 정도로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인애플은 한국에서도 병문안 갈 때 사들고 가는 파인애플 통조림, 술안주, 고기 잴 때 등등 다양하게 우리 먹거리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새콤달콤한 과일의 꽃 파인애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인애플의 학명은 Ananas comosus입니다. 파인애플의 식물학적 계층구조를 살펴보면 속씨식물문 외떡잎식물강 닭의 장풀군 벼목 파인애플과입니다.

파인애플의 원산지는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북부지역이며 브라질에서 야생으로 자라던 아메리칸 열대과일입니다. 1493년, 콜럼버스가 중미의 과달루빼를 탐험하는 동안 파인애플을 발견하고 이를 스페인으로 가지고 가면서 전파되었으며 1500년대 말, 남태평양 섬을 포함한 거의 모든 열대지방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주로 태국과 필리핀에서 전체 생산량의 3분의 1을 재배하며 인도네시아 역시 주요 파인애플 생산국입니다.

어원을 살펴보면 'anana'는 '향기', '완벽한 과일'이란 뜻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파인애플을 'Nanas' 라고 부릅니다. 파인애플은 중세 영어인 'pinappel'에서 나온 말로, 솔방울(pine cone)과 닮았다는 뜻도 있습니다. 17세기에는 연회장 식사테이블을 장식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파인애플이 엘리트들의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파인애플의 겉 표면을 살펴보면 거칠고, 갈색의 작은 마름모 모양이 모여 전체 파인애플의 껍질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딱딱한 껍질로 덮여있으며 마름모 가운데에는 뾰족한 가시모양의 돌출이 있습니다. 위로는 왕관모양(Crown)의 뻣뻣한 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껍질을 벗겨내면 샛노란 과육이 있으며, 그 중앙으로는 심지가 있어 뚫고 딱딱합니다. 육질의 맛은 약간 시

며 달콤합니다. 뚝뚝 떨어질 정도로 즙이 굉장히 많으며, 손에 묻으면 끈적끈적 할 정도로 당도 또한 과일 중 최고를 자랑합니다. 파인애플의 당도는 평균 17정도로(윗부분은 11이고 밑둥쪽은 17이상) 바나나가 16, 사과, 복숭아가 12~13정도이니 그 달콤함이 상상이 되실 겁니다.

파인애플을 한의한적으로 살펴보면 성미(性味)는 량(凉), 산감(酸甘)하며, 귀경(歸經)으로는 족궐음간경, 족양명위경, 족소음신경, 족태양방광경이 됩니다.

효능으로는 해열, 이뇨작용이 있어 열을 풀어주고 대사순환을 촉진시키며 소변이 잘 나오게 도와줍니다. 산감(酸甘)한 성질은 비위의 기운을 돕고, 담즙분비를 도와 소화기의 식체를 풀어주고 소화기능을 돕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미(酸味)는 살충하는 효능이 있고, 방향성이 있어 행기(行氣)시키니 울체(鬱滯)로 인한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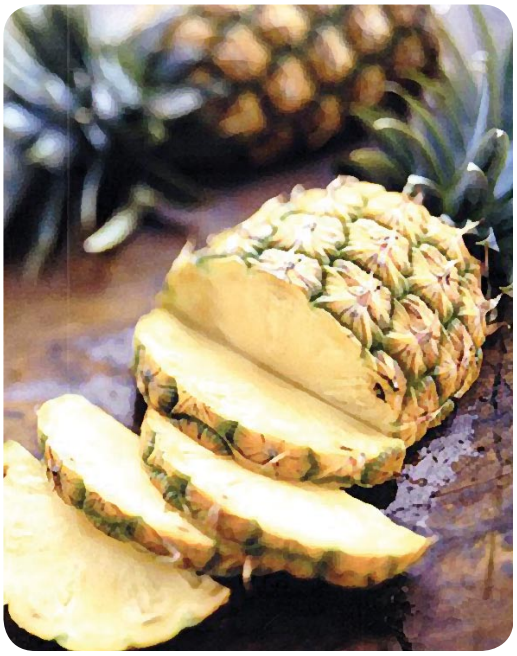
파인애플이 잘 자라는 환경은 연평균기온 20℃ 이상의 열대의 평지로부터 해발고도 800m까지가 적지이며, 바람이 잘 통하고 배수가 잘 되는 기름진 사양토가 좋다고 합니다. 반둥은 해발고도가 700m, 연평균기온이 22℃로, 반둥 파인애플이 맛있는 이유는 아마도 이런 지리학적인 원인이 있는 거 같습니다.

열매는 즙이 많고 수크로오스 10%, 시트르산 1% 가량이 들어 있으며 상쾌한 신맛과 단맛이 있습니다. 비타민C가 과일 중 가장 많은데, 100g 중에 60mg이 들어 있습니다.

브로멜린(bromelain)이라고 하는 단백질 분해효소도 들어 있어서 육류의 소화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단백질 분해효능 때문에 공복에 지나칠 정도로 많이 먹으면 위벽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브로멜린은 장내의 부패산물을 분해하는 기능이 있어 설사, 소화불량이나 가스, 악취가 나는 변 등 각종 소화기 장애 현상이 나타날 때 파인애플을 먹으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C의 함유량이 매우 높아 피로회복, 피부미용에 좋고, 신맛을 내는 구연산의 작용으로 식욕증진에 효과적이며,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에 좋아 여성분들의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기요리를 할 때 파인애플을 사용하면 독특한 향과 함께 연육작용을 합니다. 서양에서는 파파야, 키위등과 함께 육류에 미리 재워두어 효소들이 고기의 육질을 연하게 해주며, 육류에 직접 재두지 않아도 육류요리와 함께 파인애플을 섭취하거나 식사 후 후식



으로 먹는 것만으로도 소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덜 익거나 추숙(제때보다 일찍 수확하여 뒤에 익히는 것)이 불충분한 열매에는 많은 양의 산과 수산석회 등이 들어 있어서, 먹으면 구강을 침해하며 특히 어린 아이들은 피가 나는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서 먹어야 합니다.

파인애플은 다 익었을 때 수확되며, 일단 수확된 파인애플은 더 이상 익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열매를 수확한 뒤 2~3일 후숙(後熟)하면 단맛이 강해집니다. 또한 껍질의 색깔이 파인애플의 당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우선, 신선해 보이는 것, 크라운(왕관모양의 머리부분)의 색깔은 신선해 보이는 진녹색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되어 보이거나, 크라운 잎이 시들고 갈색으로 변한 것, 또한 과육이 멍든 파인애플은 피하시는 것이 구입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같이 힘들거나 피곤해서 밥맛이 없을 때 새콤달콤한 파인애플을 먹어 보는 건 어떨까요? 몸에 좋다는 비타민, 각종 영양제를 사서 매일 섭취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재배되는 열대과일로 몸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면 그야말로 인도네시아에서 누릴 수 있는 큰 혜택이자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한파, 친한파

글 : 김 문 환

국립 인도네시아대학(Universitas Indonesia)은 이공계 대학인 반둥공과대학(Institut Teknologi Bandung)과 더불어 인도네시아의 대표적 인재배출 고등교육기관이다. 1950년대에 이 대학의 경제학부(Fakultas Ekonomi)는 수미뜨로(Sumitro Djojohadikusumo) 박사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다. 후일 'BNI 46 은행'을 창설한 마르고노(Margono Djojohadikusmo)의 장남으로 1917년 중부자와 꺼부멘(Kebumen)에서 태어난 그는 자까르따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자마자 1935년 네덜란드로 유학을 떠난다. 로텔담대학(Rotterdam)에서 2년 만에 학사학위를 마친 후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 2년 동안 소르본대학(Sorbonne)에서 철학과 역사학을 수학하고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와 로텔담대학에서 석사를 거쳐 25세 때인 1943년에 경제학박사 학위까지 취득한다. 네덜란드 유학 시절 같은 유학생 신분인 마나도(Manado) 출신 여학생 도라(Dora Sigar)을 만나 1947년 자까르따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두 딸(Biantiningsih, Maryani)과 쁘라보워(Prabowo), 하심(Hashim) 두 형제를 두게 된다. 이들 중 장남이 바로 1998년 '5월사태' 당시 태풍의 중심에 섰던 쁘라보워(Prabowo) 예비역 육군 중장이다. 수미뜨로는 귀국 직후인 1946년부터 1951년까지 수딴 샤리르(Sutan Sjarir) 수상 보좌관, 정전협상단원(KMB), 워싱턴 대표부 대표, 함마슐트 유엔사무총장 자문역, 상공부장관 등의 요직을 섭렵하면서 1951년부터 UI대학 경제학부 학장에 취

임한다. 당시 UI대학 경제학부 내에서 경제학 박사 보유자는 수미뜨로 박사가 유일하였으며 교수진의 대부분은 네덜란드 및 기타 서방국가 출신이었다. 이때 서부이리안(Irian Barat) 분쟁이 수면위로 부상하여 네덜란드 정부와 긴장이 고조되자 네덜란드 출신 교수진이 황급히 귀국하게 되었다. 수미뜨로 박사는 이 공백을 메울 방안으로 미국 포드재단(Ford Foundation)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포드재단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UI대학 경제학부 학생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하여 1957년부터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 분교(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와 미국 내 타 대학으로 분산시켜 유학을 보내게 된다. 1960년대 초에 학위를 마친 유학생들은 전원 귀국하여 반둥 소재 육군참모대학(SESKOAD)에서 강사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후일 정권을 잡게 되는 수하르또 대령과 인연을 맺게 된다. 포드재단의 장학생으로 버클리 대학을 비롯한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후일 수하르또 정권의 경제 테크노크랏으로 기용된 주역들이 바로 수미뜨로 박사의 수제자들인 위조요 니띠사스뜨로(Widjojo Nitisastro), 모하멧 사들리(Mohamed Sadli), 알리 와르다나(Ali Wardana), 수마르린(J.B.Sumarlin), 수브로또(Subroto), 에밀 살림(Emil Salim) 등이다. 이들은 수하르또 정권에서 재무부장관, 경제기획원장관, 동자부장관, 환경부장관 등 경제각료로 장기간 봉직하였다. 이와 같이 포드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 분교 또는 미국의 여타대학에서 박사, 석사 학위를 마치고 돌아온 경제학자들을 소위 '버클리 마피아(Berkeley Mafia)'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수하르또 정권 기간 내내 주요 경제각료직은 이들 그룹에 의해서만 독점되어왔기 때문이다. 이들의 경제정책은 자연히 친미정책을 추구하여 왔으며 오일, 가스, 금, 은, 주석 등 자원산업을 영위하는 미국의 대형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데 촉매제가 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 의하여 신생 인도네시아의 경제를 선점한 미국의 영향력과 비견되는 국가가 바로 일본이다. 70~80년대 인도네시아 각료들의 성향을 구분한다면 친미 각료 숫자만큼이나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그룹이 바로 친일 각료 그룹이었다. 그렇다면 친일그룹은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을까?

인도네시아 독립전쟁 당시 네덜란드가 제2차 무력공세를 취한 직후인 1947년 8월 12일 미국 Lake Success에서 열린 유엔안보리 긴급회의에 참석하여 이를 항의하는 인도네시아 대표단. 앞줄 왼쪽 세 번째부터 수미뜨로 죠요하디꾸스모 박사, 아구스 살림(Agus Salim) 부단장, 수딴 샤흐리르(Sutan Sjahrir) 단장.

일본은 벌써 200년 전부터 자바와 바띡 무역을 시작하였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 1930년 대에는 인도네시아 바띡이 일본으로 수출되어 기모노 등의 의류 옷감으로 사용되었으며 1942년 3월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강점하기 직전에는 자바섬에 벌써 8천 명의 일본인이 체류하여 일본과 교역하는 바띡 가게들이 성업 중이었다. Toko Chiyoda가 반둥과 족자까르따에 점포를 개설하였으며 수라바야에 Toko Soerabaya, 마까사르에 Toko Kaneko, 족자까르따에 Toko Fuji가 문을 열었는데 Toko Fuji에서 생산되는 수제 바띡 제품은 히로히또(裕仁) 천

1980년대 중반 UI대학 경제학부 동문회(Home-coming) 행사에서 자리를 나란히 한 '버클리 마피아' 의 사제지간들. 좌로부터 위죠요(Widjojo) 박사, 알리 와르다나(Ali Wardana) 박사, 수미뜨로(Sumitro) 박사.

황가에 납품될 정도로 그 품질이 탁월하였다. 한편 군국제국주의 일본은 군수용 유류 확보 문제가 중요시 되자 일찍이 인도네시아의 석유자원을 위해 이곳에 진출하였다. 일본이 사용하는 석유의 25%외에 여타 자원의 상당 부분을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였으니 당연히 자원관련 종사자들이 많이 진출하게 된다. 태평양전쟁은 일본과 인도네시아를 숙명적으로 연결 지은 역사적 연결고리였다. 3년 반 동안의 강점기 동안 일본은 석유, 고무를 비롯한 전쟁용 자원확보에 주력하면서 전쟁초기엔 일본은 인도네시아를 영구적으로 식민지화할 야욕을 드러내고 있었다. 전쟁중반에 접어들어 전세가 불리해지자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일본군은 1943년 4월 그들의 보조인력으로서 병보(兵補; Heiho)를 창설하여 자바에 25,000명, 수마뜨라에 15,000명, 동부제도에 2,500명 등 약 42,500명의 현지인을 모병하였으며 6개월 후인 10월에는 국토방위의용군(PETA)이라는 미명하에 자바에 37,000명, 수마뜨라에 20,000명 등 약 57,000명의 현지인 병력을 별도로 양성하였으며 이들을 지휘할 소대장(Shodancho), 중대장(Chudancho), 대대장(Daidancho)급 지휘관은 모두 현지인을 임명하였다. 동부자바 바뉴마스(Banyumas) 지역 대대장이었던 수디르만(Sudirman; 초대 국군총사령관 역임), 족자카르타 지역 중대장(Chudancho)이었던 수하르또(Suharto; 대통령 역임), 찌레본(Cirebon) 지역 소대장이었던 우마르(Umar Wirahadikusma; 부통령 역임) 등이 이 때 양성된 대표적인 PETA출신 지휘관들이었다. 이들은 종전 직후 창설된 인도네시아 국군(TNI)의 간성이 되어 1998년 5월 수하르또 정권이 종말을 고하기까지 실질적으로 인도네시아를 통치한 가장 핵심적인 세력이었다. 한편 일본군정 당국은 선전 전문가인 시미즈(淸水)를 내세워 계민문화지도소(啓民文化指導所)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문화적인 동화정책을 전개하였으며 이때 연극영화부문 책임자로서 이에 일조하던 히나츠 에이따로(日夏英太郎)는 바로 허영(許泳)이라는 본명의 한국출신 시나리오 작가 겸 연극영화 연출가였다. 이와 같이 일본식 군사훈련을 받고 동화정책에 흡수된 이들이야말로 친일적인 정서에 익숙한 채로 후일 인도네시아의 지도세력으로 성장하게 된다.

1958년 초 대일청구권 협상이 타결되어 국교가 정상화 되자 거액의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 왔다. 이 자금 중 일부분으로 친일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1962년부터 1965년까지 매년 100여명의 유학생을 선발하여 일본, 구라파 등지로 국비유학생을 파견하였으며 이 당시 유학을 다녀온 대학생들은 1970년대 이후 정부각료 또는 기업가로 성장하여 국가발전의 중추가 된다. 특히 일본 유학생으로 선발된 후보자들은 데위(Dewi) 여사의 특별한 배려를 받아 제1기생으로 일본 동경대학 농업공학과에 유학한 기난자르 까르따사스미따(Ginandjar Kartasasmita)는 수하르또 정부 시절 경제기획원장관(BAPENAS), 동자부장관 등 요직을 거쳐 SBY현 정부에서도 지역대의원(DPD) 의장을 지내면서 초대 인도네시아일본친선협회

회장을 지내게 된다. 현재는 일본 유학경력이 있고 일본의 대기업인 파나소닉사의 합작 파트너인 라흐맛 고벨(Rachmat Gobel)이 회장 자리를 물려 받았고 기난자르는 명예회장으로 한 발 물러나게 된다. 소위 '기난자르 보이스(Ginandjar Boys)'라 지칭될 정도로 그의 후원을 받아온 아부리잘 바크리(Aburizal Bakri), 피델 모하맛(Fidel Mohamad), 아리삔 빠니고로(Arifin Panigoro), 압둘 라띱(Abdul Latief) 등은 일본을 잘 이해하는 기업가로 성장하여 지금은 인도네시아 재계서열의 정점에 자리잡고 있다.

1965년 9.30사태 이후 이곳 화교들은 그들의 권리가 제한되고 극도의 통제와 감시를 받는암울한 시기를 보내야 했다. 1990년에 이르러서야 중국과 국교가 재개되면서 봇물 터지듯 밀려오는 중국의 파고 앞에 인도네시아 경제도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2008년 10월에는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화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다. 기존의 '친미파', '친일파'라는 장벽 외에 '친중파'라는 또 하나의 만리장성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일정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필히 대정부 로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는데 이러한 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지한파' 인사를 찾기란 극히 어렵게 된다. 1990년대 후반 주 한국대사를 지낸 까센다(Kasenda) 해군참모총장과 베니 장군의 보좌관을 지낸 인연으로 한국기업들을 잘 알게 된 소피안 와난디 현 경총의장(APINDO)을 지한파 인사 정도로 분류한다면 1970년대 초 주한 총영사와 대리대사를 지낸 베니 무르다니 장군은 가히 친한파 인사로 불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1980년대 초 김종락 사장이 경영하던 코리아 다코마사가 인도네시아 국군으로부터 군함을 수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준 사람이 바로 당시 국방부 정보국장인 베니 무르다니 중장이었고 1981년도에는 17개사가 응찰한 서부 마두라 유전 광권 입찰에서 최하위권에 머문 한국남방개발주식회사에게 수의계약 형태로 바꾸는 파격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해외유전개발권을 획득하는데 베니 장군의 역할이 없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초창기 진출기업인 M사가 세무감사의 표적이 되어 회사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놓여 있을 때에도 베니 장군은 구세주가 되어 주었다.

3월 6일부터 3일간 이명박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하여 정상외교를 펼치고 돌아갔다. 우리 진출기업들이 친미(親美), 친일(親日), 친중(親中) 기업들에게 포위되어 숨막히는 분투를 펼치는 악조건 하에서 모국 대통령의 방문외교야말로 진출기업과 교민사회에 더없이 고마운 단비를 내려주었지만, 한편으로는 70~80년대 베니 무르다니 장군 같이 대놓고 한국기업들을 옹호하고 후원하였던 힘있는 친한파 인사의 부재가 아쉽기도 하다. 최근 들어 한국진출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복지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현지인을 상대로 꾸준히 장학사업, 자선사업을 전개하여 조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수 십 년 후 이들 수혜자들이 사회 저명인사로 성장하여 한국의 이권을 보호하고 대변해 주는 시기가 오기를 기대하며 그들 중에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제2의 베니 장군의 출현을 학수고대해 본다.

굿 이브닝 인도네시아!

나의 프리즘은 긍정으로 시작한다.

[유춘강 / 소설가, 카피라이터]

인도네시아는 너무도 먼 곳이었다.

발령을 받은 남편을 따라 이곳으로 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늦은 밤, 아이 셋과 함께 도착한 인도네시아의 밤 공기는 너무나 후덥지근했고, 몇 가지의 일 처리 때문에 입국시간이 지연이 되자 더더욱 마음은 산뜻하지 않았다. 여행과는 다른 두 번째의 방문은 그렇게 불쾌하게 시작됐다.

머릿속에선 '왜 와야만 하는가? 란 질문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했다. 하지만 이미 비행기는 인도네시아에 착륙했고, 덩달아서 우리 가족의 삶도 이곳으로 순식간에 공간 이동을 한 셈이었다. 돌아갈 수는 없었다. 집은 이미 전세를 놓았고, 남편은 이미 이곳 법인장으로 발령이 났으니까.

첫날부터 좌충우돌이더니 결국은 학교문제부터 첩첩산중이고, 후덥지근한 날씨 덕분에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은 처음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막내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입병이 심하게 났고, 수영장을 갔다가 피부병도 걸렸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학원을 다니느라 정신 없던 아이들이 나름 자기들끼리만의 놀이 방법을 발견하고 하루를 보낸다는 점이었다.

한국에 있었다면 상상하지 못했을 일들 즉, 하루 종일 그림 그리기 피아노연주하기.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합주 같은 놀이로 하루를 보냈다. 그나마 천만 다행이었다.

학교가 정해지지 않아서 집에서 한 달 간을 말 그대로 하는 일 없이 노는 동안 아이들이 한 일은 놀이와 독서였다. 큰 딸은 아예 미하엘 엔데의 끝없는 이야기라는, 떨어지면 발등이 깨질 것 같은 두꺼운 책을 읽기 시작했고, 결국은 끝을 냈다. 옆에서 봐도 대견스러울 만큼 집중해서 책을 읽는 큰 딸의 모습을 보며 이것이 또 한국과는 다른 점이구란 생각을 잠시 해봤다. 물론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 나와 아이들을 위한 휴가라고 생각하자 라는 생각이 불현듯 머리를 스쳤다. 긍정의 마음으로 돌아서는 순간이었다.

삶은 바라보기 나름이다. 어떤 프리즘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긍정의 눈으로 보면 긍정이 되고 부정의 눈으로 보면 한없이 부정적이 된다. 삶을 방관자처럼 지켜만 본다면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 시간 속으로, 인생 속으로 과감히 뛰어 들 때, 주연이 될 수도 있고, 멋진 조연이 될 수도 있는 법이다.

유춘강 / 소설가, 카피라이터

한인뉴스는 일상적이거나 혹은 이슈가 되는 주제를 가벼운 시선으로 스케치 해 나가며 긍정의 일상을 담아내고 있는 유춘강씨를 새로운 칼럼리스트로 맞이했다.

남편의 발령으로 갑작스레 인생으로 들어온 이방의 나라 인도네시아... 하지만 이곳에서 마음껏 즐길 생각인 그녀에게 한인뉴스는 약간의 지면을 건냈다.

1966년 서울 출생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서반아어과를 졸업한 유춘강씨는 동아일보와 문화일보에 칼럼을 연재해 오고 있으며 카피라이터로도 활약하고 있다.

1996년 여성동아 장편 공모에 《29세》로 당선된 그녀의 작품으로는 올 2월 출간 된 《란제리 클럽》과 《노랑나비》《러브레터》《해피통신》《결혼에 관한 가장 솔직한 검색》《쇼윈도 패밀리》《옥춘》 등이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인도네시아가 내 인생으로 들어오고, 운명은 나를 이곳으로 보냈지만 마음껏 즐길 생각이다. 즐기지 않으면 또 어쩔 것인가? 내 안의 긍정의 힘을 끌어 올려서, 그리고 영어 때문에 고전하는 큰애와 작은애 그리고 마냥 행복하기만 한 막내까지 좌충우돌 영어정복을 시작할 생각이다. 아무리 영어의 길이 멀다고 한들 그것이 넘지 못할 산은 아닐 것이며 아이들은 특유의 친화력으로 적응해갈 것이다. 돌아갔을 때 아이들에게 이곳에서의 시간이 그네들 인생의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생각이다.

한국에선 '그래 너의 인생과 꿈을 존중해' 라며 여유작작하던 <베타맘>이었던 내가 점점 그리 싫어하던 <알파맘>이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인생은 또 종종 변신을 필요로 하니까. 어쩌다 한번쯤은 <알파맘> 그것 도 나쁘진 않을 거란 생각이 든다.

순풍 돛을 단 듯 달려가는 인생만 있다면 세상에 슬퍼할 이도 없을 것이고.

걱정할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생이란 늘 그렇듯이 제 마음대로 인지라 예측을 할 수가 없다. 그게 크게 뒤통수만 맞지 않는 다면 다행이고 각자에게 던져준 미션을 당당하게 맞서서 수행한다면 그것 또한 보람 있는 일일 것이다. 인생이 태클을 걸어온다면 과감히 맞서면 되는 것이다.

지금은 터널을 통과하는 때이다. 빛은 터널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그 밝음을 알게 해준다.

꽃 중에서 긴 장마에도 제 색을 내며 피는 꽃이 수국이란다. 지금 베란다엔 수국이 한창이다. 우중에도 베란다의 수국은 제 빛을 한껏 단장하며 청보랏빛 꽃을 피우듯이 지금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때인 것 같다.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저 멀리 한국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우물안 개구리가 영어짱이 되기까지 - 니콜라스의 체험영어 10

김남규 편집위원
(코린도 그룹 이사)

나의 이름은 9개

부모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이름은 김남규 (金 南奎) 이다 .

영어로 쓰는 나의 이름은 여러 개 있다. 'Kim Nam Kyu' 'Nam Kyu Kim' 'N. K. Kim' 'Kim Nam Gyu' 'Nicholas Nam Kyu Kim' ' Nicolas Kim' 그리고 Nicolas Kim Nam Kyu 이다.

㈜ 참고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민 요정이며 세계적인 피켜 스케이팅 선수인 "김연아"를 검색해 보니 보통은 Kim Yuna로 많이 쓰고 비슷한 이름으로 쓰는 예를 들은 것이 다음과 같음을 알게 되었다

ALTERNATIVE NAMES: Yeona Kim, Kim Yeona, Yeon-Ah Kim, Kim Yeon-Ah, Yuna Kim, Kim Yuna, Yu Na Kim, Kim Yu Na, Gim Yeona, Kim Yŏna, Gim Yeon-a, Kim Yŏn-a 등

이중에서도, 나를 알거나 만났던 외국 사람이 가장 쉽게 기억하고 불러주는 이름은 Nicholas 또는 Nicolas (니꼴라스)이다. 그래서 영어 칼럼의 제목을 "니꼴라스의 체험 영어"로 사용한 것이다.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멀쩡한 이름은 어디다 팔아먹고 왠 니꼬라쓰?"

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되묻고 싶다. 정확한 영문이름은 무엇이며 어떤 순서로 쓰는지를... 나는 지금까지 30년 넘게 영어공부를 해왔고, 영어영문학을 전공으로 했으면서도, 나는 어디에서도 그것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은 바 가 없고, 내가 아는 바로는, 교육부나 외무부에 서도 지침이 없고 어느 기관에서도 신경 쓰는 곳이 없는 것으로 이해 하고 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해외에서 자랑스럽게 경기하는 모습을, TV를 통하여 수 많은 국민들이 시청하는 동안에도, 우리나라 선수들의 영문 이름이, 어처구니 없는 철자나 잘못된 발음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로 중계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을 것 이다.

예를 들어, 선수의 이름이 '홍길동' 일 때;

1) Hong Kil

: 전체 이름을 전부 채울 수가 없어, Dong 이 사라진 경우이며, 이름의 방송조차, Mr. Hong이 아니고 Hong Kil Dong도 아닌 Hong Kil 로 계속 불려지는 경우.

2) Kil Dong

: 전체 이름을 전부 채울 수가 없어, 정작 중요한 성씨는 빠지고, 이름의 방송은 Kil Dong 이나 또는 Dong 으로 불려지는 경우.

3) Hong K Dong

: Hong은 First Name으로 그냥 쓰고, Kil 은 Middle Name 으로 착각하고, 첫 글자인 K 로만 표기하고서 Family Name을 Dong 으로 생각하고, 방송은 Dong으로 불려지는 경우.

(예) Franklin D. Roosebelt

4) H. K. Dong

: 정작 중요한 Family Name(성)인 Hong 은 빠지고 Dong을 성으로 착각하여 Dong 으로 불리는 경우

5) Hong K D 또는 K D Hong

그래도 비교적 제일 나은 경우로 Hong으로 불려지는 경우임

심지어는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 인사이름이 family name 대신 middle name에서 인용되어 잘못 표기되는 것을 외국신문에서 몇 차례 본 적이 있다. 내 경우에도 Nam Kyu Kim 으로 표기했을 때 Mr. Nam 으로 불린 경우가 몇 번 있었고, Kim Nam Kyu로 표기했을 때 Mr Kyu로 불린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 한편 외국 언론들은 "박세리"는 Se-Ri Pak,"박찬호"는 Chan-Ho Park 으로 계속 표기 하여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 친숙한 이름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한글 식 순서(Kim Nam- kyu)로 쓰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이 기회를 빌어 한 가지 바램이 있다면 우리의 영문 이름 표기는 다음과 같이 통일해서 쓰는 게 좋겠다.

성은 먼저 쓰고 물론 첫 알파벳은 대문자로 하여(Kim), 이름의 첫 두 글자 알파벳은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Nam), 그리고 붙임표(-) 넣고 마지막 이름은 모두 소문자로(kyu) 즉 Kim Nam-kyu로 하는 것이다. 다만 앞으로는 영어로 된 이름(first name)을 하나씩 갖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할 것으로 생각한다. 나의 경우는 Nam Kyu의 Initial(NK)과 관련하여 Nicolas로 하였다. 이름과 상관없이 개개인의 기호나 특성에 따라 지어도 좋을 것이다. 영문이름의 예는 따로 다루기로 할 것이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영문 이름을 갖는다고 해서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주) 본인의 경우 Mr.Kim이란 아주 흔한 성으로 인하여 다른 부서로 가야 할 전화를 받은 적이 수십 차례 있었고, 심지어는 해외 출장 중 상당히 중요한 내용의 fax가 나한테 잘못 전달된 적도 2번 있었다.

㈜ 확인해 본 결과 영문이름표기법은 없고,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http://www.korean.go.kr/06_new/rule/rule06.jsp

㈜ 반기문 UN 사무총장, 박지성 선수, 마린 보이 박태환 선수 영문 이름을 검색해 본 결과, 위에서 필자가 제안한 것처럼 대부분 쓰고 있었습니다

Ban Ki-moon, Park Ji-sung, Park Tae-hwan,

김연아(Kim Yuna)처럼 이름을 붙여 쓰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24. 인터뷰 영어

6)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는?

Why do you want to work for this company?

7) 당신 인생에서 가장 큰 성취는?

What is the biggest achievement (=accomplishment) in your life?

8)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What has been the most difficult moment in your life?

9) 원하는 연봉은?

What is your expected annual salary?

10) 우리 회사가 당신을 고용해만 하는 3 가지 큰 이유를 말해주세요

Will you tell us 3 big reason why we should hire you

25. 약어

6) CV Curriculum Vitae 이력서

=Resume (미국영어)

7) EBIT: Earning Before Income Tax
=Pretax Earning 세금 전 이익

8) ALPHA
=Active, Leadership, Patience, Heart, Ambitious

㈜ 활동적이고 리더십을 갖췄으며, 끈기와 열정, 야망까지 갖춘 여성을 뜻함

9) GAP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ocedure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절차

10) PEF – private equity fund 사모펀드

㈜ 사모펀드: 특정한 소수의 자자로부터 비공개적으로 거액의 자금을 장기로 조달한 후,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부실채권, 기업경영권 등에 투자하면서,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를 지칭합니다. 일명 '고수익기업투자펀드' 라고도 함

1. 학교/연애/사랑/결혼 영어

11) 절친해 우린 서로/젊을 때에 좋은 때와 궂은 때를 같이 나눴어
We are close together/We shard good and bad times when we were young

12) 아는 사람이니? /그냥 반 친구야
Someone you know? (=Do you know him?) / He is just one of my classmates

13) 언젠가, 어디선가, 어떻게든 넌 그 해답을 찾게 될 거야
Someday, somewhere, somehow, you will find the answer

14) 이 길이 내가 원하는 거라고 넌 생각하니? /난 더 잘 되고 싶고 더 잘할 수 있기를 원해
Do you think this is the way I want to be? / I want to be better and I want to do better

15) 어깨에 기대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남자가 필요해 (직역: 남자의 어깨가 필요해)
I need man's shoulder to cry on

㈜ cry on a person's shoulder 아무의 어깨에 기대어 울다. 아무에게 괴로움을 하소연하여 위안을 얻고자 하다

2. 가정주부/생활 영어

11) 남겼다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Save it and give it to someone else.

12)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넌
You are not a team player
=You don't care others

13) 낯이 익어
It is familiar

(주) You look familiar to me 네가 낯이 익어

14) 내 말이 바로 그 말이야.
That's exactly what I am saying.

15) 내 소원은 네가 갖고 있는 것에서 행복을 찾는 거야.
My wish is you do find happiness in whatever you have got

㈜ do를 집어 넣은 것은 find를 강조 하기 위한 것이며, have got 은 자주 쓰이는데 have와 같은 뜻임

3. 전화영어

11) 전할 말씀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Any message (to him) ? = Is there any message to him? =Do you have any message? = Can I take your message down (for him)? = Do you wanna (=want to) leave a message? = If you have any message, please let me know= Can I take a message for him?

(주)말씀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Will you take a message? = Can I leave a message? = I would like to leave a message= Will you pass my message to him, please

14) 언제쯤 통화가 가능 할 까요?

What time should I call him back? =When do you think I can speak with him over the phone? = Do you have any idea when he will be back to the office? = What time is it possible for me to talk to him (over the phone)? = When is he available for me to speak to him ?= Do you know what time he is available ?= Could you figure it out the right timing for me to talk to him ?= What time it will be free (or convenient) for him to speak with me?=Could you check when he is available ?

12) Nicolas Kim한테서 전화 왔었고, 다시 전화 한다고 알려주십시오

Please tell Mr. Smith that there was a phone from me and I will call him again (I will call him back later)

(주1) later, again 이라고 막연히 이야기 하는 것 보다는 in two hours (두 시간 후에) within 15 minutes from now (지금부터 15분 이내에), 5:00 PM by your time(그 곳 시간 오후 5시) Tomorrow 9:00 o'clock in the morning by New York time (내일아침 뉴욕시간 9시), same time tomorrow(내일 같은 시간), about this time tomorrow(내일 이 시간쯤) 구체적인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

(주2) Initial contact에서는 특히 사업상, 위치상, 자신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Please ask him to call me back(전화 좀 나한테 하라고 해주시겠어요? ") 같은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

(13) 나중에 연결 좀 해주시겠습니까? 내 전화 번호는 822-777-7777입니다.

When he is back (free, available), would you connect me to my phone number at 822-777-7777=When he comes back, would you call me back? My phone number is 822-777-7777= As soon as he comes back, please give me a return call. You can reach me at 822-777-7777.

(주1) Could you see if he is able to talk to me in a couple of hours(두 시간 후에 나와 통화 할 수 있는지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주2) What time (일정한 시간만을 나타냄" 몇 시에") VS When (포괄적인 일자, 시간 등의 "언제").

15)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들어오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I have no idea(=I can not figure it out= I am sorry I don't know, =I can't say), but I will tell him that you called.

다음 달에는 4. 골프영어 5. 음식/접대 영어 6. 속담/격언/명언 7. 직장/발표/회의 관련 영어로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짱" 니꼴라스 올림

(추신) 지난 달 다국적 기업의 직책 중에서 중요한 CCO (Chief Operation Officer 사업운영 총책임자) 가 누락되어 추가합니다

행복과 스트레스

여러분 행복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또는 스트레스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행복과 스트레스는 서로 반대되는 것인데 우리 생활에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과 스트레스는 무엇일까? 사전을 찾아 보면 '행복'은 '복된 좋은 운수' 또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긴장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행복과 스트레스는 인간을 균형하는 것입니다. 저는 '행복'이란 돈이나 재산이 없어도 편하며 깨끗하고 기쁨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도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나쁜 짓을 자주 하며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어떤 가난한 사람이 먹을 만큼의 음식이 있고 돈은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돈이나 재산은 행복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기준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원래 만족하지 않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얼마 정도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쇼핑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더 쇼핑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태는 자연스러운 것인데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 정도 벌면 항상 고맙다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부족된 마음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돈이 많아도 자기가 제일 가난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불편합니다. 그런 사람은 밤에 못 잘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스트레스는 어떤 문제 때문에 몸에 해로운 긴장이나 반응이 나타나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회사나 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또는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만든 이유는 보통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집에 가는 길에 차가 너무 많고 복잡하고 시간도 빠듯할 때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긴장 뿐만 아니라 걱정도 많이 만드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는 몸에 반응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영향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아직 안 끝나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끝날 때 까지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스트레스는 사람의 생활에서 불가피한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없으면 생활이 재미없고 심심하게 생각합니다.

뿌뚜 쁘라마니아
인도네시아 대학교 (U.I)
한국학과 3학년

행복과 스트레스는 똑같은 이유로 두 가지 다른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음, 가족, 친구, 돈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하는 사람이 자기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과 스트레스는 하나를 없애면 안 되고 둘 다 같이 인간 생활속에서 균형으로써 있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신광업법(3)

변호사 이승민 (YSM & PARTNERS)

21. 주민 광업허가(IPR)

21.1. 주민 광업허가는 군수가 발급하나 면장에게 그 발급을 위임할 수 있다.

21.2. 주민 광업은 주민 광업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만 주민들이 광업에 종사하도록 상당한 규제를 하고 있다. 면적을 개인에게는 최대 1 ha, 주민 단체에는 최대 5 ha, 조합에게는 최대 10 ha로 제한하고 있으며 허가 기간은 최장 년에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하는 광업에는 사업허가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그냥 광업 허가라고 호칭하고 있다. 이는 사업허가에 따른 여러 가지 의무 사항을 주민들에게는 제한적으로만 부과시키겠다는 뜻이며 주민 광업 허가서를 멕시멈 이윤를 추구하는 사업자로 보지 않고 주민 광업 허가를 주민들의 생계 수단으로 보고 기술 지도와 금융 지원을 하여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기하되 정부의 지도와 감독 아래 두어 광업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22. 특별 광업 사업 허가(IUPK)

22.1. 특별 광업사업 허가는 해당 지역의 이익을 고려하여 동자부 장관이 발 급한다. 한 광물에 한 특별 광업 허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른 광물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새로 발견된 광물에 대하여 별도로 특별 광업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22.2. 국영기업과 지방정부 기업에게 특별광업 사업허가 발급에 우선권을 준 다.

22.3. 그러나 사기업체에게는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된 회사에게 특별 광업 허가를 준다.

22.4. 중앙정부는 특별광업 사업 허가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공포와 특별광업 사업허가 및 생산활동 특별광업 사업 허가 발급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야 하고, 반대로 특별광업 사업 허가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사업자에게는 행정적, 기술적, 환경적, 재정적인 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22.5. 특별광업 사업허가는 두 단계로 구분된다. 기초 초사, 탐사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탐사 특별광업 사업허가(IUPK Eksplorasi)와 시설건설, 채광, 가공, 정제, 수송 및 판매를 위한 생산활동 특별광업 사업허가 (IUPK Operasi Produksi)이다.

22.6. 탐사 특별광업 사업허가 보유자에게 다음 단계 광업활동을 할 수 있 는 생산활동 특별광업 사업허가 획득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어떻게 보장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정부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22.7. 탐사 특별광업 사업허가에는 사업자 상호, 지역의 위치 및 면적, 토지 운용 계획, 사업 이행 보증금, 투자 자본, 단계 별 기간 연장, 특별광업 사업허가 보유자의 의무 및 권리, 단계별 개발 기간, 허가 업종, 광업 지역 내 주민개발 계획, 세무, 토지에 대한 분쟁 해결, 고정 부과금 및 탐사 부과금 및 환경평가서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22.8. 생산활동 특별광업 사업허가에는 사업자의 상호, 개발 지역 면적, 채 광 장소, 가공지 및 정제지, 수송 및 판매, 투자 자본, 단계별 개발 기간, 토지 분쟁 해결, 채광

후 매립을 포함한 환경 문제, 매립 및 채광 후 문제 보증금, 특별광업 사업허가 기간, 특별광업 사업허가의 연장, 권리와 의무, 인근지역 주민 개발계획, 세무, 고정 부과금 및 생산 부과금과 생산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게 배분해야 하는 이익금, 분쟁 해결, 작업장의 안전과 보건, 광물 혹은 석탄의 보존, 국산 자재, 서비스 및 기술 활용, 우수 광업 및 경제 원칙 적용, 인도네시아 인력 발, 광물 혹은 석탄 데이터 관리, 광물 혹은 석탄 개발 기술의 학보, 개발 및 적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22.9. 광업사업의 종류에 따라 특별광업 사업허가의 면적과 유효 기간은 다음과 같다.

22.9.1. 금속광물 탐사를 위한 한 탐사 특별광업 사업 허가지역의 면적은 최대 100,000 ha이며 금속광물 생산활동을 위한 한 생산활동 특별광업 사업 허가지역의 면적은 최대 25,000 ha이다.

22.9.2. 석탄 탐사를 위한 한(1) 탐사 특별광업 사업허가 허가지역의 면적은 최대 50,000 ha이며 석탄 생산활동을 위한 한(1) 생산활동 특별광업 사업 허가지역의 면적은 최대 15,000 ha이다.

22.9.3. 금속 광물 탐사 특별광업 사업허가는 최장 8년까지 줄 수 있다.

22.9.4. 석탄 탐사 특별광업 사업허가는 최장 7년까지 줄 수 있다.

22.9.5. 금속 광물 혹은 석탄에 대한 생산활동 특별광업 사업 허가는 최장 20년까지 줄 수 있으며 10년씩 2회 연장이 가능하다.

23. 광업 사업허가서 보유자의 권리

23.1. 광업사업허가 보유자와 특별광업 사업허가 보유자는 탐사 단계 및 생산활동 단계애서 전체 혹은 일부를 시행할 수 있다.

23.2. 광업허가사업 보유자와 특별광업 사업허가 보유자는 법령과 규정에 의거하여 공공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다. 국가에서 건설한 도로, 교량, 항구, 공공시설물을 관계 법규에서 규정한 조건을 갖추면 사용할 수 있다.

23.3. 광업사업허가 보유자와 특별광업 사업허가 보유자는 탐사 부과금과 생산 부과금을 납부하면 개발된 방사능 부속 광물을 제외한 부속 광물, 광물 혹은 석탄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24. 광업사업허가 혹은 특별광업 사업허가 양도 금지

광업사업 허가나 특별광업 사업허가를 제삼자에게 양도를 금한다. 광권(KP) 혹은 광업사업허가(IUP) 보유자가 광권 호은 광업사업허가를 출자 출자하여 합작법인을 만들어 이 합작법인이 광권 혹은 광업사업 허가가 나와 있는 회사의 컨트랙터로 광산을 개발한다는 합작계약서를 체결하고 이에 대한 Legal Opinion을 요청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법리상으로는 적법한 방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광권 혹은 광업 사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내국 파트너가 광권 혹은 광업사업 허가를 합작법인에 자본금으로 출자하면 광권 혹은 광업사업허가가 출자 전에는 내국 파트너의 소유였던 광권 혹은 광업사업허가가 출자 후에는 합작법인의 소유가 되어야 하나, 법에서 금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광권 혹은 광업사업허가서는 합작법인의 소유가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국 파트너의 소유로 남기 때문이다.

25. 주식 양도 혹은 상장

탐사 사업허가를 받아 특정한 탐사 단계를 마치고 직권에 따라 장관, 주지사 혹은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주식 양도 혹은 주식 시장에 상장을 허용한다. 그러나 특정한 탐사 단계가 어디까지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26. 광업 사업허가서 보유자의 의무

광업사업허가 보유자와 특별광업 사업허가 보유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26.1. 우수한 광업기술을 적용한다.

26.2. 인도네시아 회계 시스템에 따라 재무를 관리한다.

26.3. 광물 및 혹은 석탄의 부가가치를 높인다.

26.4. 지역 주민의 능력 배양에 힘쓴다.

26.5. 환경 보호 한계를 준수한다.

26.6. 해당 지역의 수자원을 보호해야 한다.

26.7. 생산 활동 광업사업허가 혹은 생산 활동 특별광업 사업허가 신청 시 채광 후 계획과 매립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26.8. 채광 후 계획보증금과 채광 후 매립 보증금을 의무적

으로 준비해야 한다. 광업사업허가 보유자와 특별광업 사업허가 보유자가 채광 후 계획과 채광 후 매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관, 주지사, 시장/군수는 주어진 직권에 따라 보증금을 사용하여 제 3자로 하여금 채광 후 계획과 채광 후 매립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26.9. 채광, 가공, 정제 등으로 광물 및 혹은 석탄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광물 및 석탄의 효용을 향상시켜야 한다.

26.10. 채광된 광물에 대하여 국내 가공 의무가 있다.

26.11. 해당 지역 내 인력, 국산 자재 및 용역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26.12. 생산 활동에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26.13.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의 자문을 얻어 지역주민 발전 및 능력배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26.14. 탐사 및 생산활동 결과에 대한 모든 자료를 주어진 직권에 따라 장관, 주지사 및 혹은 시장/군수에게 제출 의무가 있다.

26.15. 광물과 석탄에 대한 개발계획 과 광업 사업 활동 이행 사항을 서면으로 주어진 직권에 따라 장관, 주지사 혹은 시장/군수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

27. 외자 투자 회사의 지분 일부 양도 의무

생산 후 5년이 지나면 광업사업허가 및 특별광업 사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 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의 일부를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영 기업체, 지방정부 기업체 혹은 100% 내국인 소유 기업체에게 양도해야 한다. 그러나 지분 양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정부령이 나와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항이다.

28. 광업사업허가 및 특별광업 사업 허가의 종료

28.1. 광업 사업허가 및 특별광업 사업허가는 광업 사업 허가 보유자의 자진 반납, 허가권자에 의한 취소 및 허가 기한 종료로 실효한다.

28.2. 자진 반납은 반드시 모든 의무 사항을 이행한 상태에서 해야 하며 광업사업허가 및 특별광업 사업허가 보유자의 허가 반납은 주어진 직권에 따라 장관, 주지사 혹은 시장/군수가 반납에 대하여 승인을 해야 발효한다.

28.3.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어진 직권에 따라 장관, 주지사 혹은 시장/군수가 광업사업허가 및 특별광업 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8.3.1. 광업사업허가 및 특별광업사업허가 보유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관련 법령 위반 시

28.3.2.광업사업허가 및 특별광업 사업허가 보유자가 본 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28.3.3. 광업사업허가 및 특별광업 사업허가 보유자가 법원에 의해 파산 선고를 받을 시

28.3.4. 광업사업허가 및 특별광업 사업허가가 종료된 광업 사업허가지역 혹은 특별광업 사업허기지역은 광업법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새로운 법인 사업자, 조합 혹은 개인에게 제의할 수 있다.

28.3.5. 광업사업허가 및 특별광업 사업허가 종료 시, 보유자는 직권에 따라 장관, 주지사 혹은 시장/군수에게 탐사 및 생산 활동을 통해 얻어진 모든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29. 광업 용역 사업

29.1. 법인 사업자, 조합 혹은 개인이 광업 용역 회사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장관이 정한 등급 및 조건을 갖춰야 한다..

29.2. 광업 용역 회사는 의무적으로 지역 내 하청업체 및 지역 내 인력을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29.3. 광업사업허가 및 특별광업 사업허가 보유자는 장관의 허가 없이 자회사 혹은 방계 회사를 광업 용역 회사로 쓰는 것을 금한다. 그러나 해당 지역 내에 관련 광업 용역 회사가 없는 경우 혹은 하청 의향/능력이 있는 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장관이 자회사 혹은 방계 회사인 광업용역 회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29.4. 법정 광업 용역 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9.4.1. 기초 조사, 탐사, 타당성 조사, 광산 건설, 운송, 광산 환경, 채광 후 계획 및 매립, 작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자문, 기획, 시행 및 장비 테스트

29.4.2. 채광, 가공 및 정제에 관한 자문, 기획, 시공 및 장비 테스트

29.5. 광업사업허가 및 특별광업 사업허가 보유자는 의무적으로 지역 및 혹은 내국 광업 용역 회사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지역 혹은 내국 광업 용역 회사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법인 사업자를 이용할 수 있다.

29.6. 광업사업허가 및 특별광업사업허가 보유자가 광업 용역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회사 활동에 대한 모든 책임은 광업사업허가 및 특별광업 사업허가 보유자에게 있다.

30. 중앙정부의 부과금 및 지방정부의 부과금 납부 의무

30.1. 광업사업허가 및 특별광업 사업허가 보유자는 중앙정부의 부과금 및 지방정부의 부과금을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중앙 정부에 내야 하는 종류는 국세, 수입관세, 물품세, 고정 부과금(로열티), 탐사 부과금(로열티), 생산 부과금(로열티), 정보 데이터비이며 지방정부 부과금은 지방세, 인허가 시 부과하는 지방 준세금 및 관련 법규에 의거한 부과금이다.

30.1. 금속광물 및 석탄에 대한 광업사업허가 및 특별광업 사업허가 보유자는 생산이 개시된 후로부터 순수익의 4(사)%를 중앙정부, 6(육)%를 지방정부에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몫은 주정부 1(일)%, 생산지 시/군 정부 2.5(이점오)% 및 생산지 시/군이 있는 주에 있는 여타 시/군 정부 2.5(이점오)%이다.

31. 토지 문제

31.1. 광업사업 허가지역, 주민광업지역 혹은 특별광업 사업허가지역에 대한 권리는 탐사 및 채광권이며 지표의 활용에 대한 권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31.2. 탐사 광업사업허가 혹은 탐사 특별광업 사업허가 보유자는 탐사 활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토지에 대한 권리 보유자의 동의를 득해야 하며 생산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관련법령에 따라 토지소유권자의 권리문제를 의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31.3. 동일 지역에 광업사업 허가권, 농장사업 허가권 및 조림사업 허가가 오버 레핑된 경우가 적지 않으며 모두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한 사업 허가서이므로 배상 혹은 교체 등의 방법으로 당사자 간에 합의에 도달 후 투자해야 한다.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에는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현지 실정이다.

32. 광업 사업 범죄 수사

32.1. 사법경찰관 이외에 광업 분야의 직무와 책임이 부여된 민간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되어 있으며 민간 공무원 수사관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32.1.1. 광업 사업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한 진술 및 보고 진위 조사

32.1.2. 광업 사업 활동 관련 범죄 혐의가 있는 개인 혹은 사업체에 대한 조사

32.1.3. 광업 사업 관련 형사 사건에 진술이 필요한 피의자 혹은 증인 강제 소환

32.1.4. 광업 사업 활동 관련 범죄를 저지르는데 사용되었다고 의심이 되는 시설 및 혹은 장소 수색

32.1.5. 광업 사업 활동 시설 조사 및 범죄를 저지르는데 사용되었다고 의심이 되는 장비 사용 중지 명령

32.1.6. 범죄를 저지르는데 사용된 광업 사업 활동 장비를 증거물로 차압 혹은 압류

32.1.7. 광업 사업 활동 관련 범죄 수사에 필요한 전문가 초청 및 혹은 도움 요청

32.1.8. 광업 사업 활동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 중지

32.1.9. 광업 사업 활동 관련 범법자 체포

33. 형사 처벌

33.1. 광업 사업허가, 주민광업허가 및 특별광업 사업허가 없이 광업사업을 하는 자는 징역 최장 10년 과 최고 100억 루삐아의 벌금형에 처한다.

33.2. 광업 사업허가, 주민광업 허가 및 특별광업 사업허가 보유자로서 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했거나 허위 설명을 한 자는 징역 최장 10년과 최고 100억 루삐아의 벌금형에 처한다.

33.3. 광업 사업허가 또는 특별광업 사업허가 없이 탐사활동을 한 자는 징역 최장 1년 징역형 혹은 최고 2억 루삐아의 벌금형에 처한다.

33.4. 탐사 광업사업허가 보유자로서 생산활동 광업사업 허가 없이 생산활동을 한 자는 징역 최장 5년 혹은 100억 루삐아의 벌금형에 처한다.

33.5. 생산활동 광업사업 허가 혹은 생산활동 특별광업 사업허가 보유자로서 광업 사업허가 혹은 특별광업 사업허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로부터 광물 및 석탄을 인수, 이용, 가공, 정제, 수송, 판매한 자는 징역 최장 10년 과 최고 100억 루삐아의 벌금형에 처한다.

33.6. 사업허가 또는 특별광업 사업허가 보유자의 광업 사업 활동을 방해한 자는 징역 최장 1년 또는 1억 루삐아의 벌금형에 처한다.

33.7. 법인 사업자가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징역형가 벌금형 이외에 법인에게 법정 최고 벌금형의 1/3(삼분지일)을 가산한다.

33.8. 법인 사업자에게는 벌금형 이외에 법인의 사업허가 취소 및 법인 자격 취소 형벌을 추가할 수 있다.

33.9. 상술한 형벌 이외에 피고에게 범죄에 사용된 물건 몰수, 범죄로 번 이익금 몰수 및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지불 형벌을 추가 할 수 있다.

33.10. 광업법을 위반하여 광업 사업허가, 주민광업 허가, 특별광업 사업허가를 발급하고 직권을 남용한 자는 징역 최장 2년 과 최고 2억 루삐아의 벌금형에 처한다.

34. 기존 광물 개발 협정서 혹은 석탄 개발 협정서 조정

34.1. 신 광업법 발효 이전에 체결된 광물개발 협정서 와 석탄개발 협정서는 협정서 상에 나타나 있는 유효일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중앙정부 부과금을 제외한 다른 내용은 신 광업법 발효일로부터 1(일)년 이내에 신 광업법에 맞게 그 내용을 조정해야 한다.

34.2. 광물개발 협정서 혹은 석탄개발 협정서 체결하고 탐사 활동, 타당성 조사, 건설 혹은 생산 활동을 한 사업자는 신 광업법 발효일로부터 늦어도 1(일)년 이내에 잔존 기간 전체 면적에 대하여 사업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정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광물개발 협정서 혹은 석탄개발 협정서 보유 회사에 대해서는 이미 체결된 광물개발 협정서 혹은 석탄개발 협정서에 나와 있는 면적을 신 광업법에서 정한 면적으로 재조정 당한다.

34.3. 광물개발 협정서 혹은 석탄개발 협정서 체결하고 생산을 개시한 사업자는 신 광업법 발효일로부터 늦어도 5(오)년 이내에 생산한 광물을 국내에서 가공 혹은 정제해야 한다.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소식

기존의 정기적인 국립 박물관 한국어 안내가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 9시 30분에 국립박물관 현관 로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4월부터는 그 일정이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국립박물관 투어에 참여를 원하시는 교민들께선 참고 바랍니다.

● 국립 박물관 한국어 투어 변경안내

기존 : 매월 첫째, 셋째주 화요일 9시 30분

변경 : 매월 첫째 주 화요일 9시 30분
매월 셋째 주 토요일 9시 30분

공동 회장 : 이수진 0816-1300-210
이종숙 0812-838-1294

드라마에서 퍼올린 바하사~

글 : 허영순 작가 (Oktn : KBS WORLD INDONESIA)
자료 제공 : OKTN (KORINDO)

오랜만에 한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공항 고속도로를 빠져 나와 시내에 들어서자, "한국에 왔구나" 하는걸
길거리 상점… 한국어로 된 간판을 보고 실감했습니다.

"김밥 천국" 인도네시아어로 직역 하면 "Surga nasi gulung"? 으로 하면 될까요?
같은 뜻일 텐데 전해지는 느낌은 달랐습니다.
김밥 천국, 천국에 모든 것이 다 있듯, 모든 종류의 김밥이 다 있다라는 뜻일 텐데…그럼
"Aneka rasa nasi gulung"이라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객을 위해 한정된 공간에, 눈 띄게 구성해야 하므로 짧지만, 무엇을 알리고자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언어의 힘인 것 같습니다.

너는 내 운명이 2월 24일 종영 됐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바랬던, 해피 앤딩은 아니었지만, 불륜이나 연애 쪽에만 치우치지 않은 가족 드라마로 가정의 소중함과 마음 자세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같은 환경, 같은 사람도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가족 드라마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홍연실 여사(김대구 부인)는 새벽의 입양을 극구 반대하며 꼬투리 잡기에 혈안이 되어있던 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삶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이를 잃고 또 위탁하던 아이에게 정이 들어 그 아이를 입양하고자 합니다. 누구보다도 홍 여사의 성격과 성향을 잘 알고 있는 김대구(남편)은 복동이(위탁아)를 입양하겠다는 홍 여사에게 좀더 신중 하라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Kaulah Takdirku. (너는 내 운명)

Aku tahu sifatmu seperti apa
Kadang ***dingin*** kadang ***menggebu-geb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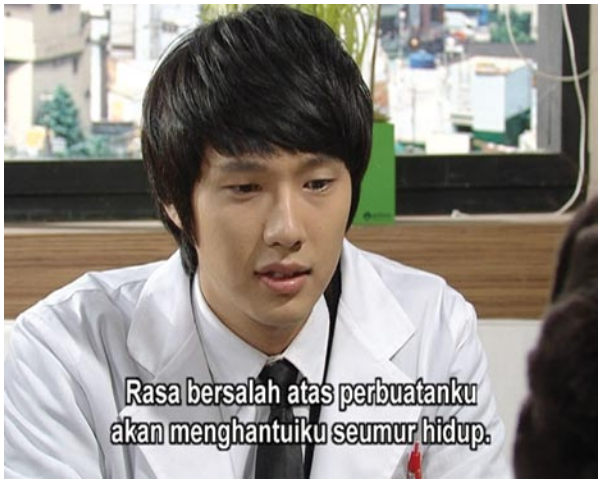
내가 알아. 당신처럼 변덕이 죽 끓듯 하는 아줌마가…

"죽 끓듯" 하다 는 요랬다 조랬다 변덕이 심한 사람을 비유 할 때 사용 됩니다.

Kadang *dingin* kadang *mengebu-gebu*
차갑다가 활 활 타오르다가 변죽이 심한 사람의 성향을 표현할 때 사용 할 수 있겠습니다.

Permata Hatiku. (내사랑 금지옥엽)

보리가 아이를 낳을 거라는걸 꿈에도 모르는 신호는 어머니를 찾아갔다가 보리와 마주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호의 마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보리에게 너와의 인연은 끝이 났지만 미안한 마음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Rasa bersalah atas perbuatanku
Akan meng***hantui***ku ***seumur hidup***ku.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죄책감은 사는 동안 평생 남겠지…

Rasa 는 어떠한 맛. 느낌(추측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 됩니다.

Aku *rasa* dia ingin pulang ke rumah sekarang.
내 생각(느낌)에 지금 집에 가고 싶어 가는 것 같아.

Rasa bersalah 잘못한 느낌…즉, 죄책감을 말 합니다.

Menghantui 의 어근은 ***Hantu*** 로 귀신, 유령 등을 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은 사람을 돕기보다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Menghantui : ***mengganggu*** 도 같은 괴롭히다 방해 하다 입니다. 이지만

Menganggu 는 육체적인 괴롭힘 또는 어떠한 일의 진행을 방해 할 때 사용 되지만, ***Menghantui***는 육체적, 심적으로 괴롭힘 당함을 뜻합니다.

Seumur hidup, ***Seumur***(Sebaya)의 어근은 ***Umur*** 로 Se "Sama"의 줄임 표현으로 동갑을 뜻합니다.

하지만 ***Seumur hidup***은 숙어로 사용되며 ***Sepanjang hidup***과 같이 "(한)평생"을 뜻합니다.
두 숙어 다 일반적으로 문두에 위치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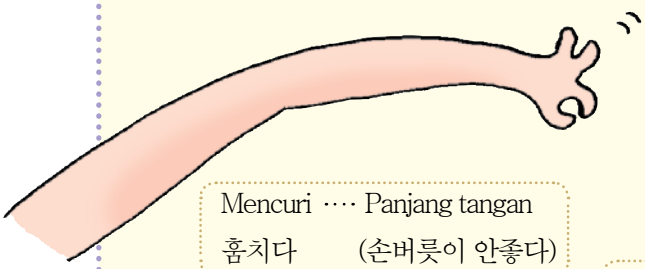
Seumur hidup aku tak pernah berhenti belajar.
나는 평생 동안 공부 했다.

Sepanjang hidupku aku akan terus mencintaimu.
평생 너를 사랑하고 싶어. (주로 노래 가사나 시에 많이 나오는 문구 입니다.)

Tip

그 동안 드라마 번역 하며 사용된 관용적인 표현들을 모아 봤습니다.
거만함, 교만함(Sombong) 을 뜻하는 "너 머리 많이 컸다" (Besar kepala)와 같이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타국의 다른 언어지만 관용적 표현에 있어 비슷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문어와 구어 (관용적 표현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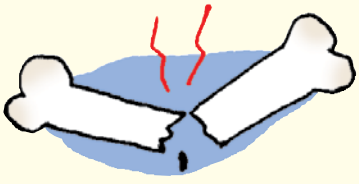
Mencuri ···· Panjang tangan
훔치다 (손버릇이 안좋다)

Terkenal ·····Naik daun
유명해 지다 (몸 값이 오르다)

Sombong ···· Besar kepala
거만하다 (머리 많이 컷다)

Kerja keras ····· Banting tulang.
열심히 일하다 (뼈가 으스러 지도록 일하다)

Marah ····· Naik darah
화가 나다 (혈압 오르다)



Kena pukul ·····Makan tangan
맞다 (한방 먹었다)

합리적 근태(勤怠)관리

근태(勤怠)란 사원의 출결 현황을 말하는데 회사 생활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업무능력이 좋아도 출결현황이 좋지 못하면 성실하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 받듯이 회사생활에 있어 가장 기본적 항목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 근태라고 볼 수 있다. 조직관리의 근간인 근무기강의 출발점도 이 근태관리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질서에 대한 수준이 열악하고 시간관념, 약속 준수에 대한 개념이 떨어지는 인도네시아 실정을 감안할 때 어떤 관리제도와 통제를 통해 사원들의 근태를 관리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할 것인지가 회사의 성과를 극대화 하는데 가장 기본적 항목이라 생각된다.

이번 호에서는 전반적 근태관련 사항을 살펴보고 근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 및 개선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근태 항목: 출결현황에는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다.

1) 근태 코드 관리

M	Mangkir(무단결근)	P5	Skorsing(정직)	H2	Cuti Bersalin(출산휴가)
M1	Ijin Mangkir(허가결근)	P2	Cuti Umum(공가)	S1	Sakit(병가)
T1	Terlambat(지각)	P1	Cuti Suka-Duka(경조휴가)	S2	Kecelakaan Kerja(공상)
P6	Ijin Pulang(조퇴)	T	Cuti Tahunan(연차휴가)	S3	Sakit Panjang(의병휴직)
P3	Pendidikan(교육)	T2	Cuti Bersama(공동휴가)		
P4	Perjalanan Dinas(출장)	H1	Cuti Haid(생리휴가)		

2. 근태 항목별 정의 및 근태관리 규정(사례):

1) Mangkir (M): 무단결근

① 사원은 출근이 불가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든지 회사에 출근 불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이는 무단 결근으로 간주된다.

② 결근시 이와 관련된 증빙 서류를 출근 첫째날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증빙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되며 징계가 부과된다.

방 치 영

방치영씨는 인니국립이슬람대학과 국립 UGM대학원에서 법학과 경영학을 전공하고 96년 LG전자 인사팀에 입사 후, LG Electronics Display Devices Indonesia와 LG.Philips Displays Indonesia에서 인사/노무/연수 총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
인도네시아 新노동법(발행 '04년 8월)
– '03년 노동법 13호 및 시행령
– '04년 산업분쟁 조정법
– 기타 주요 노동법

전화 : +62-21-898-9696
핸드폰 : +62-815-1902-4000
이메일 : agung@lpdisplays.com

③ 근무일 기준 2일 이상 연속 무단 결근한 사원에 대해 인사팀은 서면 통보서를 발송한다.

④ 인사팀의 2회에 걸친 서면 통보에도 불구하고 최소 5일 이상 무단 결근한 사원에 대해 회사는 해고 조치할 수 있다.

⑤ 무단결근은 만근수당에 영향을 미친다.

2) Ijin Mangkir (M1) 허가결근

① 허가 결근은 연차휴가가 소진된 사원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상사의 허가를 득한 경우 주어질 수 있으며 출근 첫날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불가피한 사정은 아래와 같다:

- 사망신고서로 증명이 되는 동거가족(가족은 아니나 동거함)의 사망시.
- 배우자, 자녀, 직계 존속의 병환으로 인한 입원(보호자 없음)시. (진단서 제출함.)
- 허가 결근은 최장 1개월간 2일 주어지며 만근수당 및 고과에 영향을 미친다.

③ 상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사전 허가를 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 사원은 전화나 동료를 통해 상사에게 관련 상황을 보고하여 잔여 연차휴가 소진 또는 잔여 휴가가 없을 경우 허가결근으로 근태가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출근 첫날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 직속상사는 증빙 서류 검토 후 허가 결근 처리할 수 있다.

3) Terlambat Masuk Kerja (T1): 지각

① 사원이 시업시간 5분전까지 회사의 문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지각으로 간주한다.

② 회사는 지각 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해당사원을 귀가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 휴무 특근 시에도 1.5시간 이상 지각시 귀가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계가 부과 된다.

③ 1.5시간 이상 지각사원에 대해 직속상사의 재량권으로 해당일을 휴가 처리할 수 있다.(단, 잔여 연차 휴가 유효시 가능)

④ 1개월간 지각회수가 3회를 초과할 경우 만근수당에 영향을 미친다.

4) Ijin Pulang (P6): 조퇴

조퇴란 퇴근시간 이전에 부서장의 허가를 득하여 퇴근하는 것을 조퇴라 한다. 조퇴관련 지침은 아래와 같다.

① 조퇴는 최소 4시간 이상 근무시 또는 부서장의 허가를 득하였을 경우 가능하다.

② 4시간 근무 이전 조퇴는 연차휴가 소진 또는 잔여 연차휴가 없을 시는 허가 결근으로 처리된다. 단, 아래의 경우 예외로 한다.

-질병으로 인한 경우 : 병가
-배우자, 자녀, 직계 존속 사망시 : 경조휴가
-불가항력적 자연재해 : 공가
(상기 사유의 경우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야 함.)

- 조퇴의 경우 1개월간 2회 이상일 경우 만근수당에 영향을 미친다.

5) Pendidikan (P3): 교육

①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사원의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회사가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사원은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하며 자기 계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회사는 신입사원 대상으로 부서배치 전 회사관련 일반 교육(근로방법, 조직, 규정 등)을 실시한다.
- 회사는 조직의 목표에 부합하는 사원태도,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사원 일반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 상기 일반 교육은 회사 경영철학, 노무교육, 근로안전, 품질, 제품 교육 및 기타 기초 교육을 포함한다.
- 회사는 업무 또는 직책에 맞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기능교육을 실시한다.
- 업무수행 필요성에 의거 교육 참석 대상 및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한다.
- 교육/훈련에 참석하는 사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에 임해야 한다.

② 교육/훈련에 참석하는 사원에게는 아래와 같은 근태 규정이 적용된다.

- 교육훈련은 연장근로로 간주되지 않는다.
- 사외 교육의 경우 연수팀을 통해서 실시한다.
- 만근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 Perjalanan Dinas (P4): 출장

출장은 출장규정에 따른다.

7) 휴가는 휴가 규정에 따른다.

휴가는 연차휴가(T), 경조휴가(P1), 공가(P2), 생리휴가(H1), 출산 휴가(H2) 등이며 절차는 휴가 규정에서 정한다.

8) 질병이란 의사의 진료 결과에 따르며 사원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아픈 경우를 말한다.

- Sakit (S1) 병가
- Sakit karena Kecelakaan Kerja (S2) 공상/산재
- Sakit panjang(S3) lebih dari 1 (satu) bulan 의병휴직

9) Skorsing(P5): 정직

사원의 중대실수로 인하여 해고(산업분쟁 법원의 판결) 이전 근무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주요 근태관리 지침:

1) 무단결근에 대한 관리:

특별한 사유 없이 결근을 한 것으로써 무노동 무임금에 준한 임금공제 또는 회사 취업규칙(사규), 단체협약에 근거 징계조치 할 수 있다. 노동법에서는 무단결근이 5일 이상일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병가에 대한 관리:

노동법에서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단, 병가가 잦은 사원의 경우 행태관찰(보통 휴무일 전후로 병가를 내는 사원이 많음) 및 사원이 제출한 진단서의 진위 여부를 파악해 보는 것이 좋다.(진단서를 돈으로 매매하는 경우가 많음) 진단서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는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조치하고 업무 고과에도 반영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도록 관리해야 한다.

3) 생리휴가:

여성근로자가 생리통으로 인해 생리 첫째 날과 둘째

날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전 일부 회사에서는 여사원 생리여부 확인을 위해 속옷까지 확인하여 사원들로 부터의 반발은 물론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은 바가 있는데 이런 물리적 관리는 인권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음으로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무리하게 생리휴가를 쓰지 못하게 하거나 생리휴가 사용시 문제를 삼는 것 보다는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사원과 그렇지 않은 사원들에게 차별을 둠으로써(예를 들자면 만근수당의 지급) 사원들이 자발적으로 휴가를 쓰지 않는 쪽으로 유도함이 바람직 하다. 또한 생리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노동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사원들의 생리휴가를 돈으로 박탈했다고 자칫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노동부에서도 휴가는 휴가를 위한 것이지 금전으로 대체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음)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관리는 위의 예와 같이 사원이 원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사용하지 않는 사원의 경우는 적치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만근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유도하여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경조휴가:

`03년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경조휴가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a. 근로자 결혼 3일
b. 자녀 결혼 2일
c. 자녀 할례/세례 2일
d. 배우자 출산/유산 2일
e. 배우자, 부모/처부모, 자녀, 사위/며느리 사망시 2일
f. 동거 가족구성원 사망 1일

※ 인니 노동법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규정하고(`03년 근로기준법 제93조) 있으나 연차휴가, 병가, 경조휴가, 생리휴가 등에 대해서는 유급 휴가를 규정하고 있다.

4. 효율적 관리 방법:

1) 출퇴근 체크:

많은 회사에서 타임카드를 출퇴근 검증 기구로 사용하고 있는데 인원이 많아지게 되면 그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사원수가 일정 수 이상일 경우는 전자 ID Card를 활용하여(회사 전산시스템과 연결) 출퇴근 시간, 연장근로 시간을 체크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이 시스템은 식수인원 체크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근태규정 확립:

위 2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확한 회사 내부 근태 지침을 수립하여 사원들에게 공지함으로써 사원들이 근태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한다.

3) 징계규정 확립:

취업규칙(사규) 또는 단체협약에 근태규정 위반시 징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위반사항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위반 사원을 엄정하게 관리한다.

4) 업무 고과 반영:

근태 실적을 점수화하여 업무고과시 반영함으로써 보너스 지급시, 급여인상시 차등화 하여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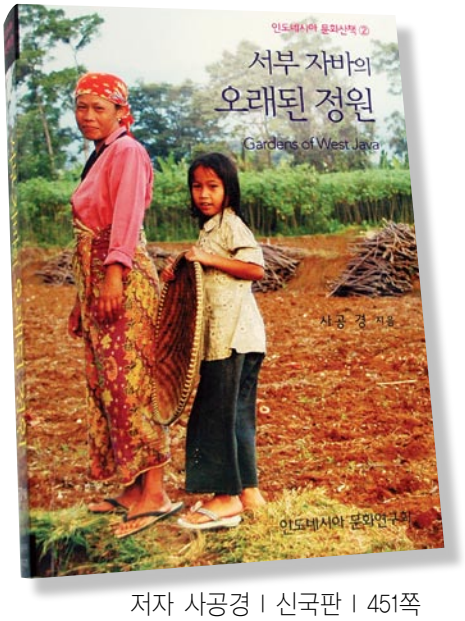
5) 포상관리:

근태 우수사원에 대해서는 만근수당의 지급, 시무식 행사시 개 근상 포상 등 포상규정을 마련하여 사원들 스스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BOOKS

더욱 깊어진 인연, 인도네시아 문화의 여정

『서부 자바의 오래된 정원』



저자 사공경 | 신국판 | 451쪽

인니 문화연구회 리더 사공경씨가 4년전 한인회 문화탐방을 운영하면서 펴낸 '인니문화산택 –1' 『자카르타 박물관 노트』에 이어 올 3월 그 두 번째 신간인 『서부 자바의 오래된 정원』를 펴냈다.

저자는 보고르 Bogor, 뿐짝 Puncak, 반둥 Bandung, 찌위데이 Ciwidey, 가룻 Garut, 찌르본 Cirebon, 꾸닝안 Kuningan, 온러스트 Onrust 등 자카르타를 넘어 좀 더 인간냄새와 자연의 향취가 배어나오는 지방으로 향했고 그 애정과 정열의 깊이을 물씬 풍겨냈다.

저자의 변

저는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문화라고 믿고 있습니다. 흔히 '예술가는 창조자다. 창조는 변혁이다'라는 말을 하지요. 창조적인 삶을 살기 위한 기본은 문화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다양한 색채와 성격을 지니고 있는 지상의 문화는, 공유할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차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논할 것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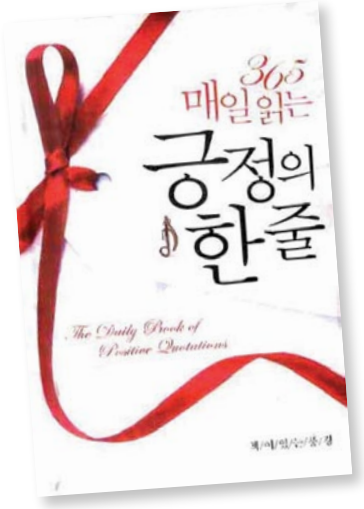
그 동안 인니 문화탐방반을 운영해 오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인도네시아 곳곳에 숨겨져 있는 오래 숙성된 역사의 향기와 그 삶의 흔적들을 확인하면서 인간과 자연에 대한 애정과 시간의 경건함에 대하여, 그리고 진정한 평화와 긍정과 수용의 정신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많은 교민 여러분들이 문화탐방반에 오셔서 인도네시아 문화의 숨결과 체취를 깨닫는 미의 잔치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가슴에 더 넓은 세계를 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다양한 삶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에 대한 꿈을 간직하면 힘이 생깁니다. 새해에는 문화탐방에 오셔서 유년 시절 놓쳐버린 꼬리 긴 연을 다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삶은 낯선 길을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여행은 안주하는 모든 것에 대해 반성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일상에 침몰된 자신을 초월해 좀 더 참다운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기르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화 탐방 중 낯선 곳에 가면 일상생활에서 닫히고 무뎌진 마음이 열리고, 빈손의 자유로움도 느끼게 됩니다.

많은 분들의 고마움을 입어서 부끄러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을 일일이 거명하지 않더라도 저의 고마움은 너무 큽니다. 함께 발로 뛴 문화탐방 가족들, 특히 신유희님, 이재원님, 조영미님, 원고 교정 등 너무나 많은 도움을 준 오현주 선생님, 정선주 선생님, 황현주 선생님, 그리고 후배 조연숙, 김태순 선생님 항상 용기를 주신 이지영 선생님, 김소연 선생님, 배성숙님,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민들 모두를 위한 책이라며, 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소중한 책이라며 기꺼이 후원해 주신 박헌식 한인회 부회장님, 송창근 한인회 부회장님, 이진수 한인회 부회장님, 배정옥 KOWIN 회장님, 고려대학교 동문회, 김상태 동문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서부 자바의 오래된 정원』을 발간하며

인니 자카르타에서 사공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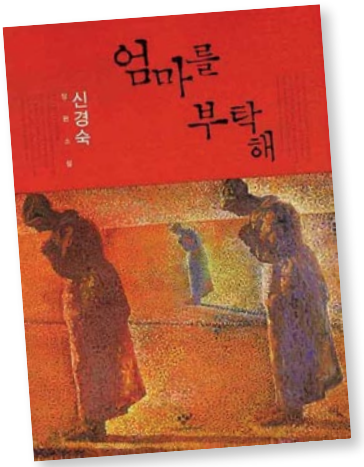


매일 읽는 긍정의 한 줄

저자 린다 피콘 | 역자 유미성 | 출판사 책이있는풍경

365일 매일 한 페이지씩 가슴 벅참을 경험하라!

『매일 읽는 긍정의 한 줄』은 동서양의 유명한 문학가, 예술인, 철학자들의 말과 글을 1년 동안 옆에 두고 읽으며 생활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구성한 책이다. 남다른 삶을 살았던 위인들의 고뇌와 그 극복을 통해 깨달은 삶의 진리가 명언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감명을 준 명언은 인류의 위대한 정신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예수와 부처를 비롯하여 인류의 큰 스승이라 할 수 있는 많은 이들이 직접 한 말을 그에 대한 저자 나름의 해석과 함께 엮었다.



엄마를 부탁해

저자 신경숙 | 출판사 창비

우리 어머니들의 삶과 사랑을 절절하고 아름답게 그려낸 신경숙의 소설『엄마를 부탁해』. 2007년 겨울부터 2008년 여름까지 '창작과비평'에 연재되어 뜨거운 호응을 받았던 작품으로, 작가가 <리진> 이후에 펴내는 여덟 번째 장편소설이다. 연재 후 4장으로 구성된 원고를 정교하게 수정하고, 100여 장에 달하는 에필로그를 덧붙였다.

소설의 이야기는 시골에서 올라온 엄마가 서울의 지하철 역에서 실종되면서 시작된다. 가족들이 사라진 엄마의 흔적을 추적하며 기억을 복원해나가는 과정은 추리소설 같은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전개된다. 늘 곁에서 무한한 사랑을 줄 것 같은 존재였던 엄마는 실종됨으로써 가족들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된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저자 F. 스콧 피츠제럴드 | 역자 김선형 | 출판사 문학동네

<위대한 개츠비>의 작가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소설집『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피츠제럴드가 펴낸 원전을 모두 수록한 완역 소설집이다. 데이비드 핀처 감독,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의 원작소설이 담겨 있다. 1920년대 미국의 '재즈 시대'를 유쾌하게 그려낸 열한 편의 단편들을 만날 수 있다.

여기에 수록된 단편들은 '피츠제럴드적인 것'의 다채로움을 보여준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일흔 살의 노인으로 태어나 평생에 걸쳐 점점 젊어지는 한 남자의 기이한 삶을 그리고 있다. <리츠칼튼 호텔만 한 다이아몬드>는 거대한 다이아몬드 산의 주인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인 워싱턴 가에 얽힌 음모와 비밀을 다룬다.

비즈니스 미팅 패키지 @ Angke

100인 기준(룸 사용시간 9시~17시)
2 X 커피 브레이크 (스낵 & 커피 포함)
1회 점심 뷔페 (6 코스 메인 메뉴)
생수, 차 & 아이스티 무료

RP 9.900.000,- nett

Additional Rp 99.000,- nett/person

무료이용:
플립 차트 보드
화이트 보드
LCD 프로젝터 & 스크린
무선 마이크 & 음향기기

**본 패키지는 2009년 8월 까지(월-금) 유효함*
단 공휴일 제외

Special treat for special you!

25% off mon-thu

15% off fri-sun public holiday

Up to 31st March 2009

****terms & conditions apply***

Standard Chartered

ANGKE 红溪酒楼 Restaurant & Function Hall www.angke.com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ANGKE KETAPANG +6221 6343030

ANGKE KELAPA GADING +6221 45866333

중소기업 위한 기술보호 실무 가이드·3

인건비 절감, 시장개척 등의 이유로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수와 투자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지금, 해외진출 중소기업 중 27.7%가 최근 3년간 보유 기술 및 정보의 외부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중 88.9%가 대처곤란 등의 이유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실정이다. 한인뉴스는 기술유출 방지 및 기술유출 시 대응방안등에 대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연구결과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도움을 받아 지면을 통해 알리고자 합니다.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유의사항

(전호에서 이어짐)

3. 보안업무 추진

(2) 물리적 보안 관리

□ 구역별 보호대책

(1) 공용구역

○ 공용구역에서는 기밀정보의 유출 및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만 실질적으로 외부인의 출입통제가 이루어지는 구역

○ 외부인의 출입 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출입자의 주요 정보를 출입관리대장에 기재하고, 내부인력이 직접 공용구역으로 나와 안내하도록 해야 함

○ 외부인의 출입 시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등의 장비 반입을 원칙적으로 통제하여야 함

○ 하지만 출입통제는 임직원이나 외래인에게 과도한 불편을 주어 보호행위 자체에 거부감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표3-2〉 공용구역에서의 보호대책

구 분	내 용	사용 가능한 장비
출입통제 시스템	▪ 시설로 출입하는 인원 및 차량을 통제하는 시스템	▪ RFID Tag gate, ID 카드 ▪ Interlocking Portal Door
반출입관리 시스템	▪ 장비, 특히 전산장비의 반출입을 통제하는 시스템	▪ 정보유출 방지 X-ray ▪ 문형 금속탐지기
화상감시 시스템	▪ 인원 및 차량 등의 출입여부의확인을 위한 시스템	▪ CCTV 등
차량 출입 통제 시스템	▪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	▪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 ▪ 역방향 진입금지 시스템
방범 시스템	▪ 불법적 침입 및 시설의 피해를경고하거나 방지하는 시스템	▪ 방탄유리 ▪ 유리파손 알람 시스템

(2) 일반구역

○ 일반구역은 사무실이나 회의실 등 일반인들도 출입승인을 받으면 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정보에 대한 보호수준이 약해지기 쉬운 구역으로 의외로 유출 및 침해 가능성이 높음

○ 일반구역에서는 외부인과 내부인의 구별이 중요하며, 원활한 식별을 위해 임직원의 사원증 패용이 필수적임

○ 사무실에서 자리 이석 시에는 화면보호기를 설정하고 책상을 정리해야 하며, 주요 문서의 경우 캐비닛 보관 후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며, 복사기, 팩스기등은 사무실 안쪽에 비치해야 함

○ 공용 회의실에서는 회의 종료 후 현장에 관련자료를 남겨 두어서는 안 되며, 보드칠판 등에 적힌 내용은 반드시 지워야 함

〈표3-3〉 일반구역에서의 보호대책

구 분	내 용	사용 가능한 장비
출입통제 시스템	▪ 구역내로 출입하는 인원을 통제하는 시스템	▪ ID 카드
화상감시 시스템	▪ 인원의 출입여부를 위한 시스템	▪ CCTV 등

(3) 제한구역

○ 제한구역에서 직접적인 정보의 유출 및 침해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설비들의 훼손, 파괴, 오작동 등으로 유출 및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제한구역의 경우 근무자 및 관련자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지만, 일반직원은 필요 시 승인을 받고 출입하며, 외부인의 출입은 통제되어야 함

〈표3-4〉 제한구역에서의 보호대책

구 분	내 용	사용 가능한 장비
출입통제 시스템	▪ 구역내로 출입하는 인원을 통제하는 시스템	▪ ID 카드 ▪ 인터컴(제한구역)
화상감시 시스템	▪ 인원의 출입여부를 위한 시스템	▪ CCTV 등

(4) 통제구역

○ 통제구역은 기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중요 정보를 직접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최상위의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함

○ 통제구역의 경우 근무자 이외는 출입을 금지하고, 관련자와 일반직원은 반드시 승인을 받은 후 출입하며, 외부인의 출입은 절대 금지되어야 함

〈표3-5〉 통제구역에서의 보호대책

구 분	내 용	사용 가능한 장비
출입통제 시스템	▪ 구역내로 출입하는 인원을 통제하는 시스템	▪ ID 카드 ▪ 강철 Door ▪ 정맥인식 시스템
도감청 방지 및 전자파 차폐 시스템	▪ 유리창으로 전해지는 소리의 진동을 증폭하여 도청하거나 전화감청을 탐지 및 방지하는 시스템	▪ 전자파탐지장치
화상감시 시스템	▪ 인원의 출입여부를 위한 시스템	▪ CCTV

□ 재해로부터의 보호

○ 제한구역과 통제구역 등 회사 내 중요시설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규모는 기업경영에 치명적일 수 있음

○ 따라서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호장치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장치로는 전기공급장치, 예비전력 공급장치, 항온항습장치, 누수탐지 및 차단장치, 화재경보 및 자동진화장치, 침입경보장치 등이 있음

○ 필요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3) 기술적 보안(IT보안관리)

□ 사용자 PC

1) 개인용 PC

○ 개인용 PC에 ID 및 패스워드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도록 하되 '1234' 등 쉽게 유추할 수 있는 패스워드 사용 지양

- 패스워드 설정 시 8자리 이상의 영문/숫자 혼용
- 3회 이상 접속 실패 시 잠금 기능 적용
- 한 번 사용된 패스워드는 일정 기간(예: 1년) 동안 재사용 금지

○ 개인용 PC에 화면보호기 및 전용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화면보호기 작동시간을 적절하게 지정(예: 10분)

○ PC에서 작업한 중요문서는 평문 조회가 불가능하도록 암호화 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 외부로의 e-mail 발송 시 파일크기를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사전승인을 얻도록 조치

○ 개인용 PC의 외부 반출시 저장내용 삭제 등 보안조치 후 사전승인을 거쳐 반출

○ CD, 디스켓 등은 일괄 구입한 후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중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CD 및 디스켓에 보관하여 특별관리

○ 공유폴더를 제거하여 내부 인력 상호간의 자유로운 파일문서 송수신 금지

○ 내부에서 생성되는 중요 정보에 대해서는 백업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천재지변, 화재 등에 대비하여 적어도 중요기밀과 문서는 반드시 CD, USB 등에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별도 장소에 보관할 필요가 있음

2) 휴대용 PC(노트북)

○ 인가되지 않은 휴대용 PC의 사용을 금하고, 초기 동작 시 사용자 식별 및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조치

○ 휴대용 PC의 하드디스크 내에는 중요정보의 저장을 금지하고, 이동식 저장장치의 사용을 통제

○ 휴대용 PC의 외부 반출시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반출

○ 휴대용 PC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캐비닛 등 밀폐된 공간에 시건장치를 하여 보관

○ 노트북 사용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

- 보안 서약서의 내용은 <p.123> 참조

□ 보조기억매체

○ 보조기억매체의 종류

- 디스켓, 이동형 하드디스크(HDD), USB 메모리, CD, DVD 등

○ 보조기억매체의 사용

- 보조기억매체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전승인을 거친 후 사용
- 등록된 보조기억매체만 사용하며, 업무목적 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 보조기억매체는 일반용, 비밀용 등으로 구분하여 등록 및 사용

□ 보안점검

○ 다음과 같은 정보처리 설비의 운영절차가 존재해야 하며, 이 내용을 전 임직원에게 공유해야 함

- 컴퓨터의 가동 및 종료절차, 유지보수 절차
- 중요 자료에 대한 백업절차
- 비밀정보를 포함한 출력물의 관리 및 폐기절차
- 시스템 오작동시 시스템의 재시작 및 복구절차

○ 네트워크와 서버 및 DB현황에 대한 보안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4) 보안업무 추진 기준

○ 보안정책

구 분	주요 내용	추진 기준
1.1 보안규정	보안규정을 보유하고 있는가?	▪ 보안규정의 구체성, 이해가능 여부 ▪ 보안규정의 주기적 개정 여부
1.2 임직원공지	보안정책, 지침, 절차의 내용에 대해 임직원들에게 공지하고 있는가?	▪ 보안규정, 지침, 절차의 제 ▪ 개정 시 임직원 공지여부
1.3 보안조직	보안전담조직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보안담당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 보안전담조직 존재여부 ▪ 보안담당자 지정 및 역할과 책임
1.4 정보공유	회사의 주요 정보에 대해서 취급 권한이 설정되어 있는가?	▪ 정보의 취급권한 설정 및 공유차단 여부
1.5 보안업무	임직원의 업무에 보안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부서별 보안책임자 임명여부 ▪ 직원별 보안업무 수행여부
1.6 보안감사	정기적으로 보안감사를 실시하고 있는가?	▪ 정기적 보안점검 수행 여부 ▪ 자체보안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 계획 수립, 실천여부
1.7 보안투자	회사 보안업무 수행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매년 일정액 투자여부 ▪ 정부지원제도 활용여부

○ 자산관리

구 분	주요 내용	추진 기준
2.1 정보자산 관리기준	회사가 보유한 정보자산에 대해 목록관리 등을 통한 관리기준을 수립하여 가지고 있는가?	▪ 부서별 ▪ 회사전체 자산목록 구분 ▪ 관리여부 ▪ 자산목록에 대한 정기확인 여부
2.2 자산등급 구분	회사의 정보자산을 중요성에 따라 '극비', '대외비', '일반' 등으로 등급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 자산분류기준(비밀성, 무결성, 가용성) 존재여부 ▪ 비밀분류의 적정성 여부
2.3 자산분류	회사의 정보자산 분류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가?	▪ 정기적으로 자산을 분류하는지 여부
2.4 정보자산 관리책임자	회사의 정보자산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 부서별 ▪ 회사전체 자산관리책임자 지정여부 ▪ 자산의 관리 및 배포에 대한 승인권자 존재여부
2.5 지적재산권 관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 지적재산권 권리출원절차 인지 여부 ▪ 지적재산권 대응전략 마련여부
2.6 자산반출	장비, 정보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회사 자산의 반출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 자산의 반출통제여부 ▪ 자산의 폐기절차 존재여부 ▪ 반출 및 폐기 시 기록유지 여부

○ 인적자원관리

구 분	주요 내용	추진 기준
3.1 보안교육	신규 입사자에 대해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 보안교육계획 수립 여부 ▪ 보안교육 실시 여부 ▪ 정기적인 교육실시 여부 ▪ 보안교육의 적정성 여부
	재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3.2 보안의식	임직원 보안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가?	▪ PC전원 Off 여부 ▪ 자리이탈시 화면보호기 설정여부 ▪ 노트북 방치 여부 ▪ 캐비닛, 서랍 등 잠금 확인 여부 ▪ 문서 및 도면 방치 여부
3.3 보안서약서	신규 입사자에 대해 보안서약서를 청구하고 있는가?	연봉계약서와 별도로 보안서약서 작성여부 ▪ 사유발생시마다 보안서약서 작성 여부 ▪ 보안서약서의 내용 – 기밀누설 시 책임, 법적분쟁여지 차단, 책임한계 등
	주요 R&D 프로젝트 참가자에 대해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있는가?	
	퇴직자에 대해 회사 정보자산의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서약서를 청구 하고 있는가?	
3.4 징계절차	종업원이 보안정책, 지침, 절차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공식적인 징계절차가 존재하는가?	▪ 보안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규정 및 징계절차 존재여부 ▪ 징계조치의 실효성 여부
3.5 퇴직자 진로파악	퇴직자의 향후 진로 및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가?	▪ 퇴직자에 대해 퇴직 시 인터뷰를 통한 진로파악 여부 ▪ 중요 퇴직자에 대한 퇴직 후 모니터링 여부
3.6 제3자 관리	제3자(협력업체, 외국인 등)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가?	▪ 제3자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및 실행 여부
3.7 사용자 권한조정	회사의 정보자산에 대한 사용자들의 접근권한은 퇴사, 계약종료, 역할조정 등의 사유발생시 조정되어지고 있는가?	▪ 회사 정보자산의 권한변경 사유 발생시 신속한 조정 여부 ▪ 퇴사 시 개인 PC와 회사 메일계정의 ID 및 패스워드 삭제여부

○ 시설 관리

구 분	주요 내용	추진 기준
4.1 시설관리	회사 내 중요시설에 대한 관리기준이 있는가?	▪ 회사내 중요시설 관리기준 보유 및 주요시설병 보호대책 마련여부
4.2 출입절차	협력업체, 방문객 등 외부인의 회사 내 출입절차가 존재한는가?	▪ 출입절차 존재 및 시행 여부 ▪ 출입관리대장 기재 여부
4.3 출입통제	회사 내 중요시설에 대해 출입통제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가?	▪ 출입통제시스템 보유 여부 ▪ 출입권한에 따른 출입통제 여부
4.4 외부인 식별	외부인 식별을 위하여 임직원의 사원증 패용을 의무화 하고 있는가?	▪ 임직원에게 사원증 배포 및 패용 여부
4.5 감시장치	건물 출입구나 중요시설에 대해 CCTV 등의 감시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 감시장치 설치 여부 ▪ 감시장치의 원활한 작동 및 기록유지 여부
4.6 통제구역 보호방안	중요시설 및 통제구역에 대해 화재, 전원, 수해 등으로부터 보호방안이 강구되어 있는가?	▪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호장치 마련 여부 (예: 전기공급장치, 항온항습장치, 침입경보장치 등)

○ IT 보안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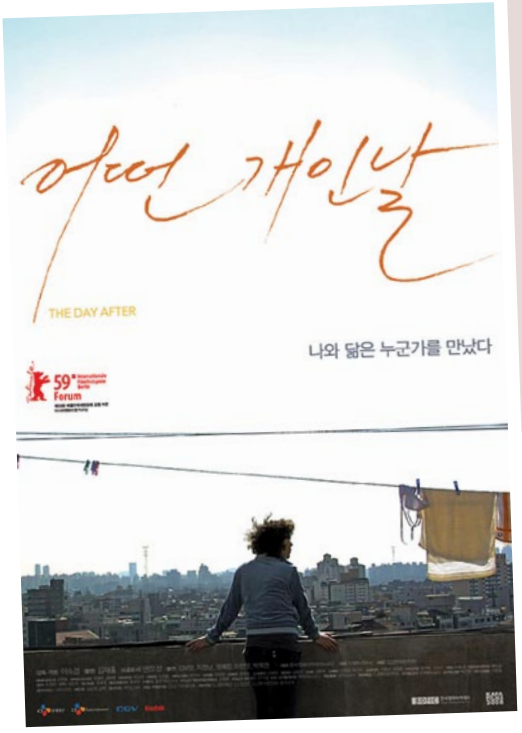
구 분	주요 내용	추진 기준
5.1 정보처리 설비운영	정보처리 설비의 운영절차가 문서화되어 있는가?	▪ 컴퓨터의 가동과 종료, 보수절차, 백업절차 존재 여부 ▪ 비밀정보를 포함한 출력물 관리 및 폐기절차 준수 여부 ▪ 시스템 오작동 시 시스템의 재시작 및 복구절차 준수 여부
5.2 보안점검	통신망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있는가? 서버 및 DB 현황에 대한 보안점 검을 실시하고 있는가?	▪ 정기적 보안점검 수행 여부 ▪ 통신망, 서버 및 DB의 주요 보안 점검 내용 포함 여부 ▪ 개인용 PC의 바이러스 검사 실시 및 스팸메일 처리 여부
5.3 정보의 백업	내부에서 생성된 주요 정보는 백업되어 관리되고 있는가?	▪ 내부 생성 정보에 대한 주기적 백업 실시 여부
5.4 보조기억 매체 관리	FD, CD, USB 등 정보의 저장이 가능한 매체에 대한 관리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보조기억매체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및 관리대장 기재 여부
5.5 전자문서 발송통제	외부로의 전자문서 발송에 대한 통제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가?	▪ 전자문서 외부발송 통제방안 마련 여부
5.6 패스워드	PC 및 주요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패스워드 관리를 하고 있는가?	▪ 개인용 PC에 ID 및 패스워드 설정 및 주기적 변경 여부
5.7 장애발생시 조치	주요 장애발생시 장애내용이 보고되어 신속하게 시정조치가 이루어 지는가?	▪ 장애내용 보고 여부 ▪ 시정조치의 신속성 여부
5.8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는가?	▪ 정기적인 유지보수 실시 여부
4.6 통제구역 보호방안	중요시설 및 통제구역에 대해 화재, 전원, 수해 등으로부터 보호방안이 강구되어 있는가?	▪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호장치 마련 여부 (예: 전기공급장치, 항온항습장치, 침입경보장치 등)

MOVIES

초록 논에 물이 돌 듯 온기를 전하는 이야기

팔순 농부와 마흔 살 소, 삶의 모든 것이 기적이었다 평생 땅을 지키며 살아온 농부 최노인에겐 30년을 부려온 소 한 마리가 있다. 소의 수명은 보통 15년, 그런데 이 소의 나이는 무려 마흔 살. 살 아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 이 소는 최노인의 베스트 프렌드이며, 최고의 농기구이고, 유일한 자가용이다. 귀가 잘 안 들리는 최노인이지만 희미한 소의 워낭 소리도 귀

신갈이 든고 한 쪽 다리가 불편하지만 소 먹일 풀을 베기 위해 매일 산을 오른다. 심지어 소에게 해가 갈까 논에 농약을 치지 않는 고집쟁이다. 소 역시 제대로 서지도 못 하면서 최노인이 고삐를 잡으면 산 같은 나뭇짐도 마다 않고 나른다. 무뚝뚝한 노인과 무덤덤한 소. 둘은 모두가 인정하는 환상의 친구다. 그러던 어느 봄, 최노인은 수의사에게 소가 올 해를 넘길 수 없을 거라는 선고를 듣게 되는데...



이 혼 1년 차 보영은 일상의 소소한 갈등도 참아내지 못할 만큼 지쳐 있다. 집을 나서는 골목길에선 택배 청년과 시비가 붙고, 마감을 훌쩍 넘긴 원고독촉도 그녀의 신경을 곤두세운다. 이제 겨울이 지나면 마흔 살이 되는 보영은 자신의 곁에서 아이답지 않은 덤덤한 얼굴로 일상을 보내는 딸아이가 걱정스럽지만 되려 짜증만 더 낸다. 전 남편은 한 통의 문자메시지로 재혼을 통보하고, 늘 위안이 되어 주었던 친구도, 오랜만에 불러낸 옛 남자친구도 보영에게 외로움만 확인시켜줄 뿐이다. 버둥댈수록 점점 수렁에 빠져드는 것 같은 무거운 나날들.

보영은 딸아이를 시각장애인인 아버지에게 맡기고 한 연수원에 특강을 하러 간다. 연수원 숙소에서 민요강사인 정남과 함께 방을 쓰게 된 보영. 밀린 원고를 쓰려 애쓰는 보영에게 정남은 넉살 좋게 맥주를 권하며 말을 건다. 똑같이 이혼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두 여자는 파티를 하듯 서로의 가슴 속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아직 이혼 후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마음이 닫혀있는 보영에게 정남은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한다'고 한다. 정남의 충고에 보영은 화를 내고, 정남은 그런 보영이 '솔직하지 못하다'며 더 몰아세운다. 다시 낯선 타인처럼 말없이 돌아누운 두 여자는 어두운 방안에서 서로의 흐느낌을 느낀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나는 기이한 모습으로 태어났다"

1918년 제 1차 세계 대전 말 뉴올리언즈. 그 해 여름, 80세의 외모를 가진 아기가 태어난다. 그 이름 벤자민 버튼(브래드 피트).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가 벤자민을 낳다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한 분노와 아이의 너무나 평범하지 않은 외모에 경악한 벤자민의 아버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를 '놀란 하우스' 양로원 현관 앞에 버린다.

"넌 다른 게 아냐, 특별할 뿐이야"

놀란 하우스에서 일하는 퀴니에게 발견된 벤자민. 퀴니를 엄마로, 그곳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친구로 살아가는 벤자민은 해가 갈수록 젊어지는 자신을 발견한다. 이제 12살이 되어 60대 외형을 가지게 된 벤자민은 어느 날, 할머니를 찾아온 6살 나이 그대로의 어린 데이지를 만난다. 그리고 데이지의 푸른 눈동자를 영원히 잊을 수 없게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만 점점 젊어진다면?"

이 제 제법 중년의 모습이 된 벤자민은 바다를 항해하며 세상을 알아가고 데이지는 뉴욕 무용단에 합류해 인생의 절정을 보내며 열정을 폭발시킨다. 그리고 끝없이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 끝에 벤자민과 데이지는 마침내 서로 함께하는 '스윗 스팟(Sweet Spot)'의 시기를 맞는다. 서로의 나이가 엇비슷해진 짧은 그 순간을 놓칠 수 없었던 벤자민과 데이지는 불 같은 사랑을 나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젊어지고 그녀는 점점 늙어가는데…

〈300〉 잭스나이더 감독 왓치맨

히어로의 세계에서 은퇴한 후, 신분을 감춘 채 왓치맨(감시자/파수꾼)으로서의 활동을 비공식적으로 계속해오던 히어로 '로어셰크'. 어느 날 과거 함께 활약했던 동료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로어셰크'는 살인사건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하고, 과거 '왓치맨'의 역할을 해오던 히어로들을 없애려는 거대한 음모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진정한 초능력을 가진 단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은퇴해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과거의 히어로들. '로어셰크'는 한때 동료였던 이들과 다시 접촉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히어로 모두의 과거와 얽혀있는, 모두를 파멸로 몰아갈 수 있는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목격하게 되는데…!

한인뉴스는 대사관과 함께 세계경제와 인도네시아의 경제흐름을 한눈에 보고 한인기업인들의 작은 길잡이가 되고자 대사관에서 매주 정리되고 있는 〈경제주간리포트〉를 교민들과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융위기

● 국회, 경기부양책 73.3조 루피아 규모로 확대 승인

국회 예산위는 2.24(화) 정부가 제출한 71.3조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총 73.3조 규모로 확대 승인했다.

이로써 동 경기부양책은 국민의 구매력 증진, 기업의 경쟁력 강화, 인프라 건설 확대를 통한 실업구제를 위해 오는 3월부터 추가적인 국회의 승인과정 없이 집행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회 예산위와 재무부는 동 경기부양책의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도 예산적자를 기존의 51.3조 루피아에서 139.5조 루피아로 확대하는 것에 동의했다.

Sri Mulyani 재무장관은 본 경기부양책의 국회 승인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의 의지를 볼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이의 조속한 시행을 약속했다.

● 중앙은행, 해외 금융상품 등록제 시행 예정

Mulyaman 중앙은행(BI) 부총재는 해외 금융상품 등록제 시행을 위한 중앙은행 규정을 3월 중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규정이 시행되면 인니에서 판매되는 모든 해외 금융상품들은 중앙은행이나 금융감독위로 신고되어야 한다.

Boediono 중앙은행 총재는 향후 자본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며 이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와 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히고, 본 규정을 통해 인니 내 투자자들이 보호받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경제조정부 발표, 인프라 부문 경기부양책 3개월 안에 시행

Bambang Susantono 경제조정부 인프라 차관은 인프라 부문 경기부양책이 향후 3개월 이내에 시행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 지원 대상을 금년 3월에 시작될 수 있는 인프라 사업으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동 차관은 인프라 부문 지원이 적시에, 정확한 목표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만큼 설계, 토지운용 등에 문제가 있는 사업들은 정부 지원을 신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Paskah Suzetta BAPPENAS 장관은 경기부양책의 초기 사업들을 통해 직, 간접적으로 250만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며, 극빈자의 비율도 15.4%에서 12~13%로 하락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Sri Mulyani 경제조정부 장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은 경기부양책에 대한 모든 자료가 5일 안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인니 경총, 인니 경제성장률 3%로 예상

Sofyan Wanandi 인니 경총 회장은 2009년도 인니 경제성장률을 3%로 예상했다.

동 회장은 세계 경제침체로 인한 피해가 올해 가장 심각할 것이며, 특히 소비재 수출가격이 평균 50%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언제 인니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동회장은 금년도 안에 소비재 가격이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며 미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한 2년 후에 인니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미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정부와 중앙은행, 공기업의 달러사용 감독 강화 발표

정부와 중앙은행은 국가 재정의 안정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위해 향후 공기업의 달러 사용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Sri Mulyani 경제조정부 장관은 이미 공기업부로 2008, 2009년 공기업의 달러화 사용(예정) 내역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하고, 향후 공기업이 필요한 만큼의 달러만을 사용하며 불명확한 지출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 재무부 장관 발표, 인니 수출량 급감

재무부는 세계 경제침체로 인한 수요감소로 2009.1월 수출실적이 2008.1월 동기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55억 달러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또한 2009.1월 셋째주까지의 수입실적이 35억 달러로 2008.1월 95억 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라고 밝혔다.

Sri Mulyani 재무부장관은 수입품의 경우 원부자재가 대부분이므로 국내 생산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하고 이에따른 실업의 증가를 우려했다.

동 장관은 2009년도 정부가 목표하는 실업률 수치는 7.4%이나 달성하기 힘들것으로 보이고 8.3~8.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 Bappenas, GDP 4.5% 성장에 그칠 경우 대량 해고 발생 경고

Paskah Suzetta, Bappenas 장관은 재무부 장관, 중앙은행 총재와 함께 국회 재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인니의 대량 해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동 장관은 2009년 GDP 성장률이 4.5%에 그칠 경우 20만명에 이르는 대량 해고가 발생할 것이고 이는 경제성장이 1% 달성될 때 마다 40만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이론의 역산이라고 말했다.

동 장관은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4.5%로 예상한다면 이것은 이미 대량 해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대량 해고는 빈곤계층의 증가와 직결된다. 2009년 경제성장률이 5.5%를 이룩한다면 인니의 빈곤층은 전인구의 12%인 2,800만

〈경제성장률 대비 해고 예상〉

구분	경제성장률 예상치(%)		
	5.5	5	4.5
실업률 (%,노동인구대비)	7.9	8.3	8.6
실업자수 (백만명)	9.09	9.46	9.82
해고자 수 (명)	100,000	150,000	200,000

명이 될 것이다. 만일 4.5%라면 빈곤층은 전인구의 13%로 3,024만명에 육박하게 된다.

2009.1월 정부는 2009년 경제성장률을 4.5%~5.5%로 예상했지만 현재는 4.5%~5%로 예상치를 하향 조정했다.

● **중앙은행, 은행업에 대한 정책방향 발표**

중앙은행은 2009년 은행업에 대한 정책이 금융위기로 인한 은행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발표했다.

Boediono 중앙은행 총재는 현재 시중은행들이 신용경색, 자산 부실화, 이윤 감소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앙은행의 역량이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은행이 발표한 2009년 은행업에 대한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 확대
2. 은행 경영 효율성 제고
3. 은행 서비스 범위 확대
4. 은행의 신자기자본협약(Basel Ⅱ) 적용을 위한 준비기간 연장
5. 은행 재무보고서의 투명성 제고
6. 은행 리스크관리 제고
7. 은행 합병 등에 대한 규정 보강
8. 중앙은행으로부터 달러화 구매시 재매입 약정 제공

경제통계 / 경제동향

● **재무부, 수출 증가율 및 경제성장률 목표치 하향 조정**

Sri Mulyani 재무부장관은 국회 재무위원회에 출석하여 경제위기로 인한 거시경제 환경변화를 설명하고 기존의 5%로 예상되었던 2009년 수출 증가율을 2.5%로 하향조정했으며 1%로 하락할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출 증가율 목표치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경제성장률 목표치 역시 하향 조정했다.

2009년도 예산 거시지표상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6.2%였으나 1월 말 최대 5%로 조정되었고 현재는 4.7%로 추가 하향조정 되었다.

● **무역부장관, 다보스 세계경제 포럼 결과 인터뷰**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 포럼에 참가한 Mari Pangestu 무역부 장관의 Bisnis Indonesia 인터뷰 내용입니다.

문 : 인니에게 금년도 다보스 포럼의 의의는?

답 : 인니는 자유무역을 위한 도하라운드의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미 합의한 내용은 여러 당사자들의 노력이며 이에 대한 재 논의가 매우 위험한 발상임을 강조할 수 있었다.

문 : 미국은 무역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다. 문제가 될 수 있는가?

답 : 우리 모두 어려움을 느꼈다. 미국은 선진국이며 국제경제에 분명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무역부 장관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다.

문 : 도하라운드 문제 이외에 토의된 내용이 있는가?

답 : 모든 나라들은 보호주의의 위험에 대해 동의했다. 물론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거의 모든 나라들은 자국 경제를 보호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안된다는 점에 모든 나라가 동의했다. WTO는 금융위기가 각 국가의 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 보고했다.

문 : 인니가 일부 상품을 수입 제한 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나라의 항의를 받았는가?

답 : 인니의 수입제한 조치는 WTO의 규정 내에서 이루어졌다. 정부는 수입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불법수입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했을 뿐이다. 회의중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인니가 아닌 미국의 경우였다. 미국의 'Buy America' 정책은 미국산 철강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된다.

문 : 기타 주요사항에 대해 알려달라

답 : 인니는 무역 증진의 방법으로 무역금융(Trade Financing)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무역부가 이를 검토중이며 향후 G-20 회의에서 제안할 예정이다.

● 1월, 디플레이션 0.07%

2008.12월에 이어 2009.1월에도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인니 통계청(BPS)는 1월 물가가 0.07%의 디플레이션을 기록했으며 정부의 유가인하 정책으로 인한 교통비 및 소비재 가격 인하가 그 이유라고 발표했다.

Sri Mulyani 재무부 장관은 소비자 물가 하락으로 인한 디플레이션이 2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2009.8월 까지의 물가 상승률이 5~6%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BNI 은행의 경제전문가는 본 디플레이션이 소비자의 구매력 감소에 기인하며 경제위기에 대비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심리적 압박이 시장에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실질적인 소득의 감소가 소비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2008.12월 수출량 감소에서 예상할 수 있는 소득의 감소가 소비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방소식 / 개발관련 사항

● Bappenas, 인프라 부문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주안점 발표

Dedy Bappenas 인프라 담당 차관은 현재 인니의 인프라 부문 민간투자가 매우 저조하며 정부투자가 50%를 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발표하고 인프라 부문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 차관은 프로젝트 준비를 위한 정부의 능력배양, 인프라 투자관련 규정과 기관의 정비, 투자 안전 보장 및 투자자가 손쉽게 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 차관은 모노레일 사업을 예로 들어 예상 승객수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보상해야 하며, 현재 인프라 투자를 위해 BRI 은행에서 제공하는 단기대출 보다 강화된 10년 만기의 장기대출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동 차관은 200억불 규모의 82개 신규 인프라 대상사업의 입찰과 관련하여 2월말 Paskah Suzetta, Bappenas 장관이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부통령, Natuna 광구 개발자 선정에 외국 간섭 거부

네덜란드를 방문하고 있는 Jusuf Kalla 부통령은 Exxon Mobil이 Natuna D Alpha광구의 개발권을 소유하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개발자를 선정하는 것은 인니이며 어떤 나라도 이에 간섭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통령은 2005년에 동 광구에 대한 Exxon Mobil의 개발권은 종료되었으며 현재 모든 나라를 상대로 개발자 선정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협의 대상에는 Shell Royal Dutch, Exxon Mobil Oil, Petro China, State Oil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 공기업부 발표, 광업법 관련 조례안 준비중

공기업부는 부처 산하 광물개발 공기업들을 통해 개정 광업법의 후속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Sofyan Djalil 공기업부 장관은 2009년 개정된 광업법이 국가발전을 위한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하고 동 법의 빠른 시행을 위해 조속히 조례를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 작성에 참여한 공기업은 PT Aneka Tambang(석탄), PT Tambang Timah(주석), PT Batubara Bukit Asam(석탄)이며, 현재 준비중인 4개 조례는 각각 광업지역, 광물 및 석탄 회사의 활동, 정부의 지도 및 감독, 복원과 개발 후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광업법에 의거 후속 조례는 개정일(1.12)로부터 1년 이내에 작성완료 되어야 하나 정부는 이를 6개월로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 가격 하락 예상

Darmadi, ERA 대표이사는 현금자산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1/4분기 이후부터 주택을 매도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 주택가격이 2/4분기부터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규 분양되는 주택의 가격은 연말까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Titra 인니 부동산중개업회장은 미국의 주택 신용도가 폭락하면서 인도네시아 투자자들의 태도 역시 변하고 있지만 주식투자보다는 여전히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고 있으며 단지 경제위기로 인한 주택가격의 하락을 기대하며 투자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동 회장은 1~2년 내에 현금자산이 필요하다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장기투자자들에게는 올해가 부동산 구입의 적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에너지광물부 발표, 땅구지역 LNG 5월 선적 시작

Evita 에너지광물부 석유가스총국장은 땅구지역의 LNG가 순조롭게 생산되고 있으며 기술적인 문제로 2009.2월 선적은 못했지만 2009.5월에 수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출 목적지가 중국인지 한국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R Priyono BP Migas 사장은 생산된 LNG가 정부의 정책에 따라 국내 시장에 우선적으로 공급될 것이며 나머지 분량이 수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Natuna D Alpha 광구나 동부 깔리만딴 광구에서 Chevron이 생산하고 있는 가스는 생산단가가 높은 관계로 국내에 공급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 국내건설업자회의, 외국계 회사의 무분별한 인니 건설시장 잠식 경고

Pandri 국내건설업자회의(Gapenri) 위원장은 외국계 회사들이 무분별하게 인니 건설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불법적으로 국내에 건설회사를 설립하거나 인프라 투자 시 시공업체를 외국에서 불러오는 형태로 인니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 위원장은 미국, 유럽 건설시장의 침체 및 인니의 인프라 사업 확장 정책으로 인해 시장 잠식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중국과 일본의 건설업자들은 인니에 차관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자국 시공사의 참여를 공격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Surmaryanto 공공사업부 건설및인력조정청장은 인니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 중 일부는 외국의 신기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하고 폐쇄적으로 인니 건설시장을 운

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국 회사가 인니 건설시장에 진출할 경우 외국계 자본은 55%로 제한되고 반드시 인니 국내회사와 합자해야 하며 외국계 노동력에 대한 허가 역시 이사, 부장, 전문인력에 한해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 기상청, 2월 인니 전역에 폭우로 인한 홍수 및 산사태 주의

우기의 최고조인 2월에 들어서면서 강풍과 천둥, 폭우를 동반한 악천후가 인니 전 지역을 강타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심각한 홍수 피해 및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기상청은 향후 1주일 동안 수마뜨라 해안과 인근 섬, 북부 및 서부 자와, 발리, 서부 누사뚱가라, 술라웨시, 말루꾸, 파푸아 지역으로 악천후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와 같은 현상이 이상 기후나 몬순의 영향이 아닌 지역적인 날씨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현재 자카르타 지역의 강수량은 연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보고르, 뿐짝, 찌안주르 등 상류지역에 2월 내 300mm 이상의 폭우가 집중적으로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상청은 홍수의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관련 사항

● Apindo 발표, 중부자와 뿌르발링가 지역 가발업체 불황

Saryono 경총(Apindo) 뿌르발링가 지부장은 동지역 내 가발업체들이 기존에 수주한 오더를 생산하고 있을 뿐 현재까지 새로운 오더는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뿌르발링가 지역에는 19개 외국인 투자회사(PMA)가 있으며 대부분 한국회사들이다. 지역내에서 생산된 가발은 거의 전량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동 지부장은 가발업체들이 미국 경제 동향을 지켜보고 있으며 4월까지 오더현황을 지켜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내 가발생산업체인 PT Yuro Mustika에서 정년이 넘은 직원을 대상으로 해고한 예는 있으나 현재까지 동 지역에서 대량해고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국제관련 사항

● 말레이시아, 인니의 수입항구 제한에 대해 항의

말레이시아의 산업통상부 장관은 인니의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항구 제한에 대한 항의 서한을 주인니말레이시아 대사관을 통해 인니 무역부장관에게 발송했다.
Pradnyawati 말레이시아대사관 상무관은 말레이시아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본 제한조치를 WTO 규정 위반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는 동 장관령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동 상무관은 본 수입제한 조치 이전에 인니의 141개 항구로 수출되던 제품들이 이제는 5개항구, 5개 공항을 통해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수출되고 있어 수출량이 급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니는 신발, 섬유, 전자, 완구, 식음료의 다섯 개 품목의 수입을 5개 특정항구(Tajung Priok, Tanjung Perak, Belawan, Tanjung Emas, Makasar)와 5개 특정공항(Soekarno-Hatta, Juanda, Ahmad Yani, Polonia, Sultan Hassanudin)을 통해서만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무역부장관령을 2008.12.24 발표한 바 있다. 본 장관령은 2010년 까지 유효하다.

● 아시아개발은행, Asian Monetary Fund 구축 필요성 강조

Masahiro Kawai 아시아개발은행 총재는 아시아 지역의 경제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동 지역에서 IMF와 같은 기능을 하는 아시아통화기금(AMF)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중, 일 및 아세안 10개국은 치앙 마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1,200억달러 규모의 기금 준비에 동의한 바 있다. 동 총재는 10년 전 인니, 태국, 한국을 강타했던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고, 통화 스왑을 위해 조성된 1,200억달러 규모의 기금운용을 위해 AMF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인니-미얀마, 철도분야 협력 재 확인

Sebastianus 주미얀마 인니대사는 미얀마 철도교통장관과 만나 향후 인니-미얀마의 경제분야 특히 철도분야에서의 협력을 재차 약속했다. 인니-미얀마의 철도분야 협력 약속은 처음이 아니다. '95년 당시 인니는 200대의 객차와 10대의 기관차를 미얀마로 판매하려 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인니철도공사(PT INKA)는 양국간의 협력 재개 약속을 환영하고 미얀마 측이 조속히 철도차량을 구매해 줄 것을 희망했다.
이에 인니 외교부는 2009년 3월 미얀마 수상 방문시 철도교통부장관이 수행하게 되면 PT INKA와 면담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얀마 철도사업에는 중국, 프랑스, 태국 등이 참여하고 있고 인니는 미얀마의 Rakhine 지역에서 시작되는 국가철도건설사업에 차량을 제공할 예정이다.
PT Inka는 말련, 필리핀, 태국, 호주, 방글라데시 등에 해외지사를 가지고 있으며 연간 객차 60대, 화물차 300대, 디젤기관차 20대를 생산하고 있다.

● 인니 러시아로부터 잠수함 구입 예정

Yusron Ihza 국회 국방위원회 부의장은 인니가 러시아로부터 잠수함을 구매할 의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러시아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동 부의장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본 구매를 진행하나 현재의 경제위기로 인해 단계적으로 구매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 부의장은 잠수함이 고가이므로 많은 수를 구매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최신식 잠수함 3대를 구매할 예정임을 언급했다.
인니 국방위원회는 국방분야 예산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예산 심의시 1/3 만이 통과됐다고 말하고 금융위기로 인한 예산확보 어려움으로 인해 공군, 해군의 장비가 노후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생활정보 가이드

tel.021.521.2212
hp.081.888.5353
email.yunisarah@lycos.co.kr
마타하리여행사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Since 1994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코리아센터 빌딩 4층(대사관 맞은편)
T 520-7153, 525-4523 F 521-2478 doowang@cbn.net.id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人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520 1915
영사과	520 8950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522 777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긴급전화

경찰 (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18,11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3
수도고장및문의	5798 6555/577 2010
TOL 상황	801 1735
열차시간 문의	121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국 부인회	526 0878
반둥 한인회	022 2041 773
발리 한인회	0361 286 248
보고르 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 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 한인회	0298 522 296
메단 한인회	061 453 8669
족자 한인회	0274 376 741
바땀 한인회	0778 392 014
보고르 한인회	7782 886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교민 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벼룩시장	8983 1908
좋은느낌	5290 0040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844 4958~61
JIS	750 3640
NJIS	450 7660
BIS	745 166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유치원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은혜	7098 3568
하나	844 5283
리틀램 스쿨(자카르타)	723 0807
(끌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4224

은행

수출입 은행	525 7261
외환 은행	574 1030
우리 은행	515 1919

종교 단체

기독교

늘푸른 교회	766 9191
동부 교회	4584 3458
연합 교회	720 5979
소망 교회	739 6487
순복음 교회	739 2373
안디옥 교회	765 3077
열린 교회	844 5537
위자야 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420 9134
주님의 교회	831 3843
한마음 교회	720 8014
한인 성요셉 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7030 5898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해인사 인니포교원	769 5392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 건강원	7028 4262
고려 건강원	8779 8959
한국 건강원	5579 6411
황소 건강원	5576 7628
진영 삼붕냐와	8234 565
솔진생 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롬 황성주 생식	5296 1522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6 142 5099
난 이야기	0812 913 1355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렌트카/기사클럽

강남 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 렌트카	6870 9335
우리 렌트카	081 119 3069
한성 렌트카	889 0471
짱구 기사 클럽	7279 8233

미용실/피부관리

겔러리 J	725 2856
국제 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	723 5638
아마란스 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퀸덤	7279 2067~8

Kris Kim	7279 1555
Hair Perm	7280 1404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 사무실	797 6254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 밀레니움	7082 0056
리츠 부동산	6896 7249

인테리어

LIVING A & 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KEMBAR REJEKI	527 2245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길명근 한의원	722 4646
뉴 월드 메디칼	7279 3809
대한 치과	721 1850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 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솔 한의원	7278 7410
신농씨 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한국병원	720 7727
한인치과	720 1359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땅그랑)	546 0055
R.S. Siloam(찌까랑)	8990 1911
S.O.S	750 5973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사진관

전' S 포토 스튜디오	521 08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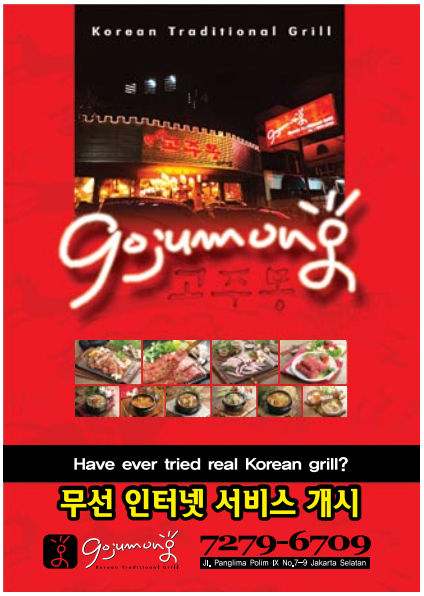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끌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효(세노파티)	5289 7044
가효(끌라빠가딩)	2850 7600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경복궁	8990 8822
고려가든	(024)321 992
고목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기소야	574 7581
기준	250 6532
뉴 코리아타워	3193 0311
다리아 분식	722 0276
다솔	251 2030~1
대감집	726 4356
대장금	551 4311
돌아온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동해	725 2856
또래오래 치킨(버까시)	8243 4848
레드토마토 EX몰	315 1033
뽄독인다	7592 0654
끌라빠가딩	4585 4316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	552 1210
모나리자	8990 9570
물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 호텔)	5296 1201
미추홀	6583 1472
버까시 서울	8895 7604
산들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상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 일식	546 0845
서울 팔레스	(024)447 414
소양강	897 2231
송도(리뽀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끌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7082 0601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생활정보 가이드



아리랑(리뽀찌까랑)	8990	1662
아리아 분식	722	0276
어울림	551	4853
오장동 오스시	739	6229
우리들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	4585	1156
2002 레스토랑	5940	4189
장터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리안 하우스	844	4786
코리안 하우스(반둥)	(022)203	1626
코리안하우스 횟집	844	5877
타임(가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칠보산	4585	1161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뽀찌까랑)	8990	6230
하나정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강(One Pacific Place)	000	0000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끌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Esse MM2100	8998	1564
LA 갈비	7278	0550
Lobster & King Crab	515	5060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스피드뉴스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0	9107
일요신문	452	5655
JAKARTA POST	530	0476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굿데이 투어	4586	0598
그린 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6	6415
마타하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 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574	2660
스카이 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 트래블	230	3116
코인 관광	720	7230
하나 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땀)	0778 462	500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운송 해운 이삿짐

센다이 이주화물	719	0247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A EXPRESS	525	1628
FN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520	4189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6531	1123

인테리어

Living A&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오토맥스		

증권/보험

동서 KOLIBINDO	526	1326
삼성 화재	520	5511
한진코린도 보험	797	5959
E - TRADING	574	1442
LIG 손해보험	391	3101

컨설팅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뽀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 컴퓨터	725 1606
멀티캡 컴퓨터	5579 0305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한컴	5435 3007
www.indoweb.org	7082 0051
Reading Revolution	722 0833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CITRA	781 7771

하숙집

쉼터 하숙	726 8775
일박이일 하숙집	424 0953
교민 하숙	0816 163 5558

학원/교육업

대교 인도네시아	8370 7245
다니엘 아카데미	722 0686
리 앤 리	725 5008
마인드케어 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 아카데미	7280 1663
박학천 논술	3342 7540
쁜똑 인다 아카데미	7590 5773
에쎄드라 아트스쿨(리뽀까라와찌)	546 4531
예 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 학원	7279 1020
토마토 미술	720 5194
피카소 어린이 미술학원	725 5757
하이스트 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 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항공

대한 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싱가폴 항공	570 4411

호텔

그랜드 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 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 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환전

그린 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 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 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 신암	797 6105
참피온 머니체인저	4585 4779
환전	712 8556

기타

꽃과 좋은날	0811 941 173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발리 (지역번호 0361)

여행사

PESONA TAMAN KENCANA	744 1525
PD 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288 999
APA TOUR	241 341
TNB	773 5801
KORUS	744 7200
MARIN TOUR	224 010
VIP TOUR	762 090
SUDINA BALI	744 2121
MATAHARI KORIN	757 474
CAKRAWALA TOUR	727 242
B.J.C TOUR	284 365
M TOUR	725 800
SATYA TOUR	283 305
RED CAP	754 4418
스피릿투어	234 825
Varia Tour	860 4977
Korea Travel	756 899
대한항공지점	244 988

식당

A One Seoul Garden	768 323
hanil rest	727 250
Seoul Garden (0362)	292 20
청기와	287 503
꼬끼레스토랑	287 503
Ajengan Korean FOOD	263 793
Grill House Restaurant	752 755
BUGA RESTAURANT	286 909

서비스업

- 마사지

아이시스마사지	287 503
INKO MASSAGE	789 2000
MASSO MASSAGE	725 475

- 빌라,호텔

드림랜드빌라	708 199
라벤더 호텔 앤 스파	752 961
BEVERLY HILLS	789 2000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Arirang Hotel (0363)	417 95

- 기타 서비스업

INT	720 999
HAN STAR	729 099
BALI ZIGI.COM	745 4229

광고문의

521-2515

시나르무띠아라(진주)	462 061
선주얼리진주가게	761 539
발리데와따	285 501
CLEAN/GREEN	289 070
환타지가라오케	282 828
뜨게아궁	298 643
공항(폴로)	759 368
BALI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익투스	815 310
Bali Cable Com	705 266
B,T,I	284 362
머르타나디(가구점)	
DEDO RAYA UTAMA	720 452
G.B.I 발론기구	704 333
LAPAMA 레프팅	288 507

3월 공지 사항

미등록 납세자 출국세 인상

인도네시아 개정 세법에 따라 '09.1.1일 부터 납세자에 대한 출국세가 100만 루피아 ⇒ 250만 루피아로, 항구를 통해 여행을 하는 경우 50만 루피아에서 100만 루피아로 인상됨 인상됩니다. 다만, 납세등록자는 출국세가 면제되며 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공항 및 항구(출국세 납부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 항공권, 납세자등록번호(NPWP) 사본, 체류허가증(KITAS) 원본

– 등록번호 사본을 확인한 후 이민국 직원이 "출국세 면세" 스티커를 항공권에 부착하여 줌

– NPWP가 없는 개인은 최소한 3일 전에 세무서에 NPWP 등록 신청

○ 등록납세자의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당관 영사확인을 받아 상기 준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영사확인시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및 동 영문번역. 수수료 : Rp.26,000.

〈참고〉 출국세 면제 대상

○ 당연 면제: 21세 미만 개인, 최근 12개월 사이 인도네시아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인 외국인, 외교관, 성지순례자, 해외취업 근로자 등

○ 구비서류제출시 면제: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연구원, 바땀 · 빈딴 · 까리문 지역 외국인 노동자, 예술 · 문화 · 스포츠 · 종교 사절단, 장애인 또는 복지단체가 비용을 지불하는 해외치료목적 출국환자,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출국하는 학생

※ 출국세 문의 : 김동일 국세관 HP. 0811-175-2446

※ 가족관계증명서 영사확인 문의 :
박상훈 영사 HP.0812-983-0537
최인희 행정원 HP. 0812-827-9612

한인회 무료 법률상담 안내

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4시(1시간)

장소 : 한인문화회관 1층 상담실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No. 58, Jakarta Selatan
상담방법 : 대면 및 통화
상담범위 : 기업법무.투자콘설팅.M&A.부동산. 저당권.자원개발.채권회수.파산관재.가사.상속.지적재산권.소송. 중재.재단법인.출입국관리법 등 법률문제 전반
상담자 : 이승민 변호사.변리사.파산관재사(한인회 자문변호사)
(MP.0816-1911245, Tel. 021) 529-60643)
yisngmin@centrin.net.id

가족관계증명서(출국세 관련) 안내

1. 납세자 가족증명 영사확인 절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추가로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납세자 본인

– NPWP 사본, 여권, 항공권, 체류허가증(KITAS) 원본

○ 납세자 가족(21세 이상)

– SKSKP 사본(자카르타 관할구청 가족 등록서류), 납세자(배우자)의 NPWP 사본 및 여권 사본, 항공권, 여권, 체류허가증(KITAS) 원본

2. 상기 SKSKP는 KITAS 소지 외국인이 반드시 관할 구청에 신고하는 것이나 간혹 지방에서는 발급해 주지 않고 있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어, 동 SKSKP 사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한국 가족관계 서류를 영사확인 받아 위 필요한 서류와 함께 공항 출국세 담당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 서류 영사확인 : 본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나 주민등록등본 중 1통과 동 가족 관계내용을 영어로 번역(대사관 간이 양식 비치) 제출시 영사확인 가능함.

2009년도 부인회 취미활동반 안내

부인회에서 2009년도 취미활동반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신설된 반들도 있으니 많이 참여하셔서 건강하고 알찬 인도네시아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운영교실	일시	강사	기간	장소	연락처
플 룻	월요일 10:00-11:30	유은영	현재 활동중	부인회 사무실	769-2166 0812-924-1860
영 어	화요일 10:00-11:30	차지환	3월 17일	부인회 사무실	720-9985 0812-1872-9003
꽃꽂이	수요일 10:00-12:00	이승희	3월 18일	부인회 사무실	5292-1067 0813-8899-9175
서 예	목요일 09:00-12:00	손인식	현재 활동중	부인회 사무실	739-7153 0815-936-9114
컴퓨터	목요일 10:00-12:00	김미혜	3월 19일	레드토마토 세노빠띠점	426-2918 0815-9590-436
유화반	금요일 10:00-12;30	김수영	3월 13일	부인회 사무실	750-3006 0858-8543-6348
스포츠댄스	토요일 15:00-17:00	Melly	3월 14일	부인회 사무실	0816-160-5911
	일요일 16:00-18:00	Melly	3월 15일	부인회 사무실	0817-155-864

부인회 연락처(총무) : 박성영 0816-160-5911, 류경희 0817-155-864, 이효순 0817-665-0959

재 인도네시아 한국부인회 회장 홍 미 숙

범죄신고 관련 전화번호 변경 안내

인도네시아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범죄신고 관련 전화번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12 (인도네시아 공통번호)
- 일반전화, 핸드폰으로 신고가능
- 신고시 지역경찰서 또는 파출소 연결
- 기존 110은 사용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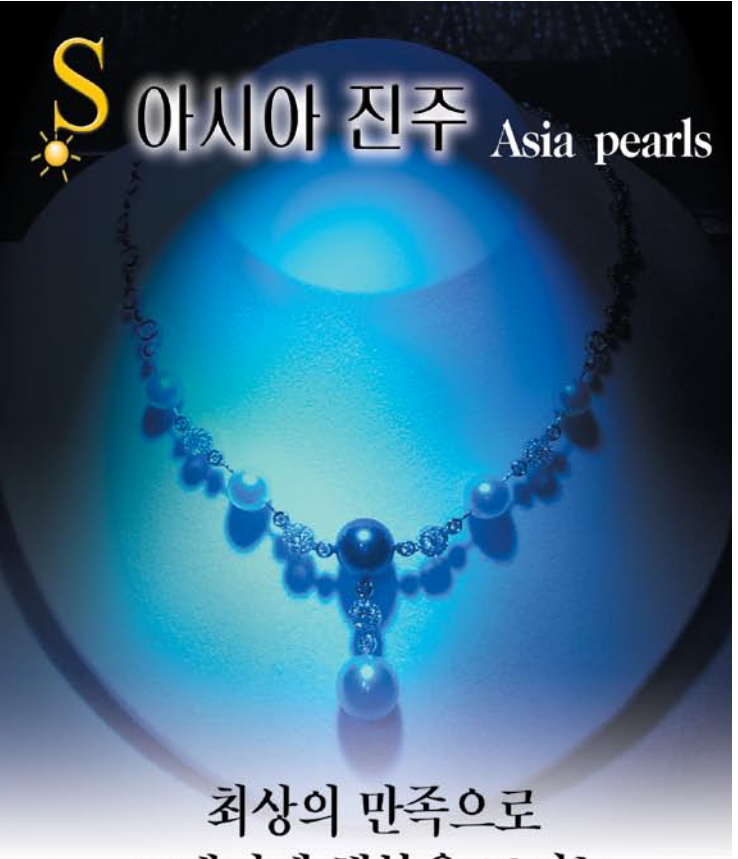
○ 1717 (자카르타 시경 관할내에서만 가능)
- 자카르타 시경에서 운영
- 단문 문자메세지 전송가능
- 범죄신고 이외의 일반 불편사항 신고 접수

블루버드 택시 안전유의

최근 경기악화 등에 따라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식되었던 블루버드 택시도 안전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스나얀시티에서 블루버드 택시를 이용한 교민이 운행도중 택시 기사가 공범으로 추정되는 자와 통화 후 뒤따라온 4명의 오토바이 기사로부터 금품을 강취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택시를 이용하실 때에는 차량번호와 운전수 이름 등을 확인하시고 야간에 부녀자 혼자 이용하는 것을 자제하는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의 만족으로
고객님께 행복을 드리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최고의 품질과 정품만을 취급하며
한국 체인점에서도 100% 품질 보장

◆진주 전품목 수출 및 현지도매 ◆다이아(GIA 감정서 외 첨부)
◆셋팅물 일체 ◆선물용 진주(Rp20만 부터)
◆행운의 열쇠 및 회사로고 주문 제작

갤러리(워자야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KT-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 점(수출/무역)
HP. 0816-873-176 / 0816-1390-333

대한항공 동계 운항 안내

자카르타/서울 노선 및 덴파사르(발리)/서울 2008년 동계 운항 시간을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편안한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한항공 항공편

1. 항공기 운항 시간표

구간	편명	출발	도착	요일
자카르타 〉 인천	KE628	21:55	06:50+1	매일
인천 〉 자카르타	KE627	15:20	20:30	매일
덴파사르 〉 인천	KE630	03:35	11:30	월,일
		00:45	08:40	화~토
인천 〉 덴파사르	KE629	17:15	23:25	월~,금
		20:05	02:15+1	토,일

2. 기간: 2008. 10. 26~

또한 6월부터 기 시행중인 신 전화 서비스는 한국어/영어 서비스를 각 지역 CALL CENTER에서 24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021-521-2180 으로 유선 연결 후 언어별 번호 선택하면 해당 언어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1번 : 인도네시아어 서비스
2번 : 한국어 서비스 (24시간 서비스)
3번 : 영어 서비스 (24시간 서비스)
4번 : 중국어 서비스
5번 : 일본어 서비스

교민 여러분을 편리한 스케줄과 안전운항으로
매일 고국으로 모십니다.

KOREAN AIR
시내 Tel (021) 521 – 2180 / Fax 521 – 2184
공항 Tel (021) 550 – 2389 / Fax 550 – 2388

PT. SUNG BO JAYA

GARMENT TRADER, MANUFACTURER, IMPORTER & EXPORTER

Woven Factory

Knitting Factory

Cutting

Warehouse

Integrated Garment Manufacturer

Garment
• Dyeing
• Washing
• Printing
• Embroidery

New Project :
PT. Yuri Indo Apparel

Office & Factory address :
Kp. Rawailat RT 03/09, Ds. Dayeuh, Kec. Cileungsi, Kabupaten Bogor 16820
Tel. 021-823 1440, Fax 021-823 1456, E-mail : sungbo@sungbojaya.co.id

이명박 대통령의
PT.BPG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PT.BPG 임직원 일동 -

PT . BUSANA PRIMA GLOBAL (BPG)